

지역주민의 문화마당

# 광명문화저널

광명문화저널 • 2001 가을 - 제 3호



표지인물 곽향숙(외대어학원장)

**특집** - 문화의집 3년 성과와 전망 / **논단** - 사이버문화  
**탐방** - 광명보건소 노인요양센터 개원 / **기획** - 광명의 거리  
**바뀌는 문화** - 주민자치센터

2001 가을

광명문화원

광명문화원

# 가을이면

위상진 (시인, 한국문인협회 광명지부 부지부장)

가을이면

스산한 고샅길 걷는다

기억의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아득한 발걸음은

한적한 숲길로 숲길로

낡은 벤치 옆을 걷게한다

텅빈 거리마다

낙엽은 추억을 묻어두고

그리움이 여운 그림들이

거리마다 걸린다

벼랑에 선 계절을

잔술로 비우고

슈의(囚衣)의 앞섶을 여미면

석고상을 닮는가

향수를 부채질하는 거리마다

레코드 가게마다

기억의 금서를 펼치는

시린 음악이 화살로 날아와도

퇴색한 묘비명은

흑백사진에 갇힌다

가을이면

스산한 고샅길 서성이며

암호 해독문을 읽는다

난수표를 주머니에 낙엽처럼 쓸어넣고

떠도는 이별을 투망질하는

바람등이 나크네 같이



## 사진작가 이명환

1947년 대구 출생

1991년 광명사진협회, 163회 회원전 개최

광명사진단체협의회 회장

광명시 문화예술위원

광명사진 문화회 회장

# Contents



표지인물 **곽향숙** (외대어학원장)

곽향숙 외대어학원장은  
요즘 들어 더욱 바쁘다.  
장미로타리 회장을 역임하고,  
사회교육사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광명시 문화와 복지를 위한  
그녀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광명문화저널 제 3호

발행처 | 광명문화원

발행인 | 정원조

편집인 | 이종락

편집위원 | 양철원/정은경

한옥현/강은미/신란희

발행일 | 2001. 1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명문화저널 - 제 3호 2001. 10

- 4 문화칼럼
- 6 특집 / 문화의 집 3년 성과와 전망
- 8 문화의 집 운영사례
- 10 문화의 집 동아리 소개 / 짜즈댄스팀
- 11 문화만평

## 지역이야기

- 12 광명을 지키는 사람들
- 14 청문집 동아리소개
- 16 청소년 유해환경거리조사
- 18 노인복지문화의 요람-보건소 노인요양센터

## 전통유산

- 20 광명의 문헌자료
- 22 역사의 인물 이순신

## 논단

- 24 사이버 문화

## 탐방기획

- 26 기획/광명의 거리를 찾아서(문화,패션,가구)
- 28 바뀌는 문화 / 주민자치센터
- 30 부천문화원을 찾아서
- 32 시네마 7070 극장을 찾아서

## 문화의 뜰

- 34 전통문화-우리 문양 이야기
- 36 만남 / 박은정 합창단
- 37 가을에 권하는 책
- 38 과천 마당극제
- 40 도자기 축제 참여기
- 42 유머 / 퍼즐
- 44 자원봉사축제
- 46 아방리 줄다리기

## 글모음

- 48 시
- 50 수필
- 54 문화단신
- 55 문화원소개
- 56 임원소개
- 57회원명단

❖ 이 책은 광명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문화와 사회, 경제 함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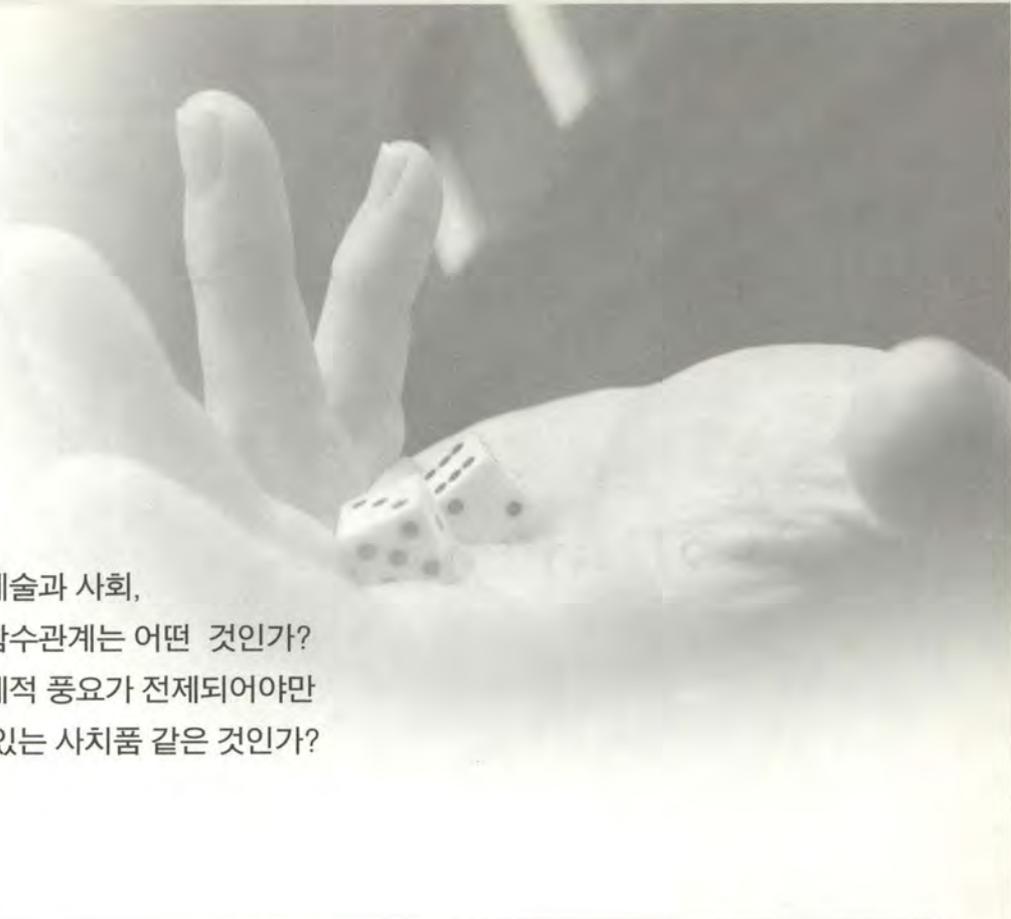
광명문화원장 | 정 원 조

**불**경기 시대와 테러리즘으로 얼어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사람들은 서글프다. IMF 이후 한 때는 좀 나아지나 보다 했던 경제가 전 세계적 불황의 경제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불경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았던 뉴욕에서의 회대의 테러 사건으로 전 세계가 모두 뒤숭숭해진 가운데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란 그저 어려움과 고통스런 이야기들뿐이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황폐해 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고생스럽게 문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눈치 없는 사람이거나 사물의 전후좌우를 판단치 못하는 좀 모자란 사람쯤으로 치부될지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우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나 아니면 사회가 조용하고 안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문화와 예술 같은 고상한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선 IMF가 터지면서부터 문화의 불모화 현상이 현실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뉴욕에서의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미국 문화의 본산 뉴욕에서조차 급격하게 문화활동이 동결되어 버린 예가 그것이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90% 이상의 각종 예술, 문화활동이 정지되었고 브로드웨이 등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각종 예술공연도 모두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예술과 사회, 경제간의 함수관계는 어떤 것인가? 문화란 경제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향유할 수 있는 사치



과연 문화예술과 사회,  
경제간의 함수관계는 어떤 것인가?  
문화란 경제적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향유할 수 있는 사치품 같은 것인가?

품 같은 것인가?

여기서 한 예를 들어보자. 1929년 뉴욕의 월가에 증시폭락이 일어났고 곧이어 대공황이 닥쳐왔을 때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뉴욕인들이었다. 휴지가 되 버린 주식,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자본가들, 도산으로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 도시 전체가 깊은 시름과 고통에 잠기게 된 것이다. 이 때 바로 이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찾게 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예술활동이었다. 캘러웨이, 듀크 엘링턴 등이 연주하는 재즈에 뉴욕커들이 한잔의 술과 함께 심신의 피곤을 털었으며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 기회를 찾아 속속 뉴욕에 모여들었다. 주 정부는 주정부대로 도시환경의 미화작업을 미술가들을 동원하여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던 도시에 벽화, 조각물들을 조성하는 대대적 공공 미화사업을 벌였다. 가난한 예술인들의 배를 채워주는 동시에 절망의 도시에 문화예술의 힘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가난한 시대에도 예술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문화사랑 정책은 이번 참담한 뉴욕 무역센터의 참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늘 우리가 현실로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문화 예술이 황폐해진 우리의 심성을 녹여주고 희망을 가지고 보다 밝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문화란 가장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때다. ♠



## 광명 문화의 집 3년의 성과와 전망

문화저널 특집팀

1997년 광명시와 문화관광부의 조성 계획에 의해 선정되어 1998년 새로 신축된 광명5동 사무소 2, 3층에 자리잡게 된 광명 문화의 집은 1998년 12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1999년 2월 12일 정식 개관을 하였다.

『생활속의 문화공간』을 모토로 하여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참여하고 스스로 누리는 시민문화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생긴 문화의 집이 우리 지역에서도 드디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문화의 집은 인터넷 부스를 이용한 정보 습득, 문화관람실을 이용한 풍물, 한국무용, 발레, 재즈댄스등의 사회교육 및 영화관람, 소장 도서와 비디오 대여 및 관람, 문화창작실을 이용한 주민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해오고 있다.

### ▶ 입지조건과 한계

문화의 집이 자리한 광명5동 지역은 서민중심의 주거지역이다.

또한 문화의 집은 대로변이 아닌 동네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입지는 시 유일의 문화의 집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할 문화의 집이 한 개동의 문화의집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더구나 바로 앞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인해 특정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의 이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부르기도 하였다.

도시형 문화의 집 중 이런 곳에 자리한 문화의 집은 광명 문화의 집이 거의 유일하다.초창기에는 관심이 높은 일부 하안동, 철산동의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고 발표회를 보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았으나 버스정류장에서도 10여 분 이상을 걸어야 하고 골목을 한참 돌아야 하는 위치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다. 지금 광명5동을 제외하고 주거지가 다른 이용 시민들은 풍물교실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전부이다.

한편 동사무소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 공간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메이킹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나 2000년도에 정부의 주도로 일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들이 문화센터 또는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은 광명시가 소유한 생활문화시설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지녀시민들에게 대표문화시설로서의 자긍심을 주어야 하나 차별성이 없는 현실에서는 그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 ▶ 3년의 성과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문화 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혜택을 받지못하던 광명5동 주민들에게는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문화시설의 설치로 인해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직 2001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한 산술적 평가를 해도 1999년 2월부터 2001년 8월의 31개월 동안 연 인원 160,548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였고 이는 월 평균 5,178명, 하루평균 173명이 이용한 것이다. 공간의 규모와 입지에 비추어 봐도 적지않은 이용 시민이라 판단된다.

자료대출 회원을 중심으로 한 고정 회원들의 증가는 문화의 집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며 한국무용, 풍물, 발레를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의 활성화는 생활 속의 문화공간과 이를 통한 스스로 문화향유를 하는 시민들을 성장시키는 문화의 집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도서 및 비디오자료는 시의 지원에 힘입어 매년 5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저렴한 실비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적극적인 이용을 하는 주민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 과제의 지향성

의미있는 문화실험인 문화의 집은 3년동안 안정을 이루었다고 판단되어지나 3년의 세월동안 많은 시민이 이용한 관계로

생긴 시설의 노화와 낡로 발전하는 - 특히 시청각 부문 - 기술의 발달로 현 시설의 낙후된 바는 전체 하드웨어 면에서 2기를 맞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내용 면에서는 작지만 지역에 근거한 공간이므로 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착하여 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을 육성하여 언젠가는 그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기획하여 문화의 집을 기반으로 동네 축제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문화기획자들이 더욱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에 밀착하여 지역 활동가로 성장하여야 한다.

이럴 때 문화의 집이 단순한 시설 이용을 벗어나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활용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것이고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2기 문화의 집이 성공하는 길이다.



## 문화의 집 운영사례

광명문화의 집 | 한 옥 현

**문**화의 집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심미적,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창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체험, 학습, 창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만남과 의사소통 공간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의 집은 지역 주민들을 엮어 자발적인 문화소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조직화(organizing)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정보, 공간 및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의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로 알아 보기로 하겠다.

**첫**째 문화의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참여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끌어 들인 것인가?

김포 문화의집의 경우 1998년 12월 29일 김포 시립도서관에 개관하였으면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는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설립초기에 운영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끝에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되, 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이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주민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김포 문화의집은 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 프로그램 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프로그램 기획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의를 하는 협의체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포시는 시장홍보지 및 지역 방송, 지방지 등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홍보를 했고, 주민들 중에서 문화의 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심사, 선정하고 시장이 직접 위촉하여 1999년 3월에 기획팀을 구성하였다.





**구** 성원은 시립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위원 중 1명,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소지자 2명, 문화봉사 경험이 있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기획팀을 매주 1회(주로 토요일) 이상 정기적으로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회의에서 제시된 문제나 합의된 인건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획팀은 크게 강좌 프로그램 활용기능, 문화관련 단체 및 동아리들의 시설이용기능, 공연 및 전시 유치, 관람기능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기획, 섭외, 집행,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관료주의적 문화행정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집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화의 집에 설문지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기도 한다. 서대문구의 경우 서대문 문화의집에 10명으로 구성된 여성구성평가단을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문화창작, 문화체험, 문화정보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서대문 문화의집 사례는 주민들이 문화의 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문화의집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둘**째 문화의집이 가지고 있는 대중주의적인 공간적 기초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서대문 문화의집의 경우 100여개의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문화의집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규모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김포 문화의집의 경우에도 한국문인협회 김포지부의 7개 문화단체 및 동아리 회원 145명이 매주 또는 월1회 갖는 정기적인 모임을 위해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목포 문화의집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동아리들이 문화사랑방을 이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송대 스터디그룹, 여류시인들의 글사랑 동인들이 문화창작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일제 수업을 하는 학교를 파악하여 각 학교의 선생님을 감사로 초빙하고, 청소년 음악교실, 청소년 영화교실, 청소년 미술교실, 청소년 댄스교실, 청소년 기자교실을 운영 매주 토요일(전일제 수업)학생 1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농촌에 있는 산청 문화의 집의 경우에도 매주 일요일 한번씩 모여 기존의 문학작품과 문예이론을 습득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문화회인 '아침햇살'이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 명화를 중심으로 감상하고 토론하면서 기존의 영화이론들을 발췌하여 영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영화모임 '짧은 필름', 그리고 기타 동호니, 소묘 동호인 등이 있다. 산청문화의집은 이러한 동아리들의 활동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다. 부천 문화의집의 경우에는 복사골마당, 비디오 영상동아리, 만화애니메이션동아리, 복사골사진동아리, 부천역사연구모임, 중동바독교실연합회, 시사랑모임, 크로마하프 동호회 등 많은 문화가족 및 동아리 모임이 문화의집을 하고 있으며, 부천문화의집은 이러한 동호회 중심으로 '문화가족 작은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개** 문화의집이 갖고 있는 여건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도시는 도시지역대로 농어촌은 농어촌 지역대로 하지만 문화의집이 생기게 된 궁극적인 목표는 열린 생활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체험과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아직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



# 광명문화의집 - 재즈댄스팀

광명문화의 집 | 오은영

언제부터인지 뜨겁던 열기는 9월과 함께 제법 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두근거리는 가을의 입구에 선 토요일 오후. 한바탕 운동을 끝낸 십 여명의 회원들이 찾은 공원 - 땀에 젖은 몸 체취에 섞여 풍겨내는 짹짹하고 구수한 음식 냄새, 소녀적 예나 있었을 듯한 재잘거림, 낙엽이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 문화의 집 재즈댄스동아리 팀의 가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매주 화, 목, 토요일 오전에 문화의집 3층에서는 경쾌한 음악과 힙찬 구령이 들려온다.

수줍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던 이들의 모습을 재즈댄스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힙찬 동작으로 댄스에 열중하는 프로들이 있을 뿐이다. 분주한 아침시간 손에 이끌려 왔던 아이들도 엄마의 그런 모습에 낮이 설은지 한참을 넋을 놓아버린다. 화려함...주부이자, 엄마였던 이들에게 느껴지는 단어는 지금 이것뿐이다.

재즈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있지 않을까 싶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여러 연결 동작을 함으로써 재즈의 멋을 알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유연성, 체형교정에 효과적이죠." 재즈댄스 동아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현정 선생님의 설명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진 오늘날에 있어서 좋은 몸(?)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건강관리를 하는 것만큼이나 현대인에게 중요하므로 처음 오는 회원들에게는 가장 솔깃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회원중의 한 분은 '걸어다니는 광

고'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그 효과에 놀라서 문의 해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수업내용도 워밍업 및 스트레칭, jazz walk, step 등 다양한 장르의 jazz dance를 하고 있으니 시도하는 사람이 적은 반면 한번 수업을 듣고 나면 여간해서는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다.

재즈댄스 동아리는 문화의집에서 가장 장수를 누리고있는 강좌 중의 하나이다. 문화의집이 생활 속의 문화공간, 주민들을 향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는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였고, 적게는 두 명에서부터 지금의 열 세 명에 이르기까지 재즈댄스팀의 동아리 모임은 꾸준히 계속 되어 왔다. 물론 이들에게도 어려운 고비가 있었다. 하나가 아닌 여러 명이 팀웍을 이루어내는 일, 개인적인 시간 차, 지속되어지는 모임 속에서의 각자의 개성 등은 2년이 넘는 시간을 이어주는데 한계를 느끼게도 한 것이다. 시간이 빛나간 회원들의 빈자리가 그랬고, 감사 선생님의 부재 또한 팀을 유지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재즈에 대한 회원들의 사랑이, 작품에 대한 열정이, 회원들간의 친목이,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형성시키면서 질기게도 동아리는 유지되어왔고 이들은 지금 문화의 집 동아리 중 가장 안정되고 잘 놀(?)줄 아는 모임으로 자리잡혀 있다. 무엇인가가 시작하고 싶은 가을, 주부들의 비어있는 시간과 마음을 채워 줄 무엇, 시작한 것의 결과에 대한 욕심...시원한 하늘 아래 소풍 나온 여고생 마냥 들떠있는 이들은 단순히 재즈댄스만을 하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 광명을 지키는 사람들 -노인교통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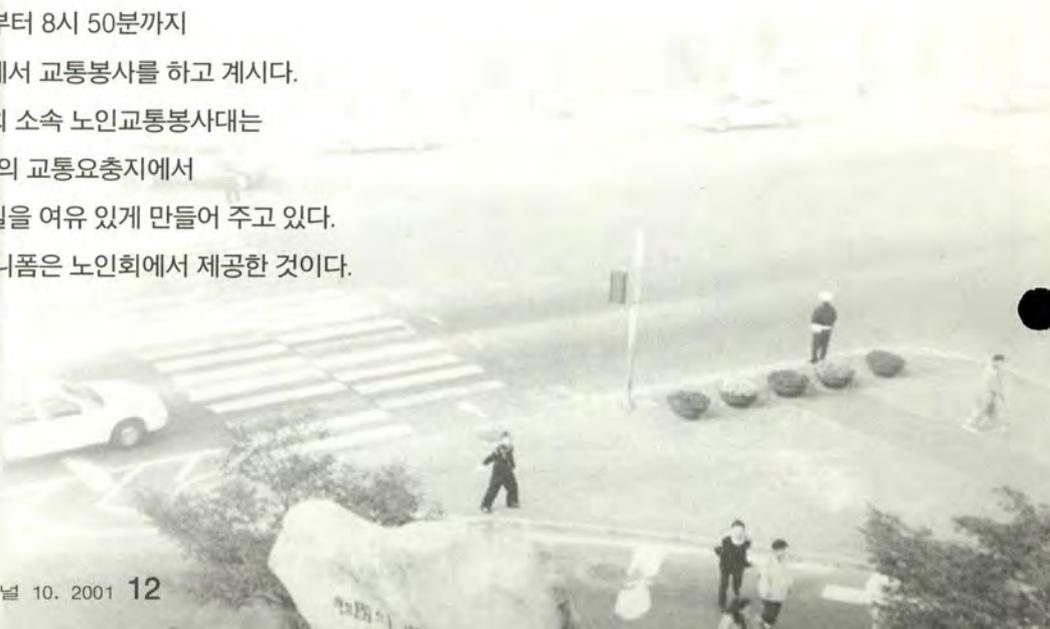
노인의 자상함으로 아침의 거리를 지킨다

정리 | 양철원(문화원사무국장)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출근하는  
공무원, 시민,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언제나 활기에 넘치는 곳이다.  
분주한 발걸음 속에 자칫 놓치기 쉬운 질서와 안전.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자상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인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어  
바쁜 출근길에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음정례 (71세), 이재석(70세), 한용진 씨.  
이 분들은 대한노인회 광명지회 소속 노인교통봉사대의 대원으로  
지난 97년부터 오늘까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계시다.  
대한 노인회 광명지회 소속 노인교통봉사대는  
약 40명으로 우리 시의 교통요충지에서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매일 입는 깨끗한 유니폼은 노인회에서 제공한 것이다.



# Q & A

## Q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습니까?

A. 노인회관을 다니던 중노인들이 아이들은 다 기르고 다른 소일거리가 없다가 봉사활동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8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8명 가량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른 아침에 매연을 맡으며 이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지라 지금은 처음 멤버보다도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Q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A 시민들이 지나다가 낮이 익은 시민들이 가끔 음료수를 권하거나 인사를 해줄 때 보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을 지키고 보행자들도 급하게 횡단을 하지 않고 늦었다 싶을 때는 건너지 않아 안전을 우선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보람됩니다.

## Q.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도 학생들이 젊은 혈기로 길을 가로지르거나 주의를 주었을 때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의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기에는 어려운 일.

아무리 노인들이라 해도 자기의 시간이 필요한 법. 자기의 아침시간을 내서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본인들은 소일거리라지만 큰 결심과 노력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맡으며 매일 매일 서있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우리 시 도로는 그다지 넓지 않기에 큰 길 곳곳에서 하늘색 상의의 교통지킴이들을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한번씩 손을 흔들며 웃어 드리는 것이 이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봉사의 멋과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분들이 광명의 지킴이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바란다.

# 동아리 소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공동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는 동아리팀이 몇몇 있다.  
그중에서도 카메라의 눈을 통해 청소년의 세상을 바라보고  
영상매체의 제작과정을 함께 이해하고 탐구하여  
영상제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영상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청소년영상제작단동아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문화의 집 팀장 | 이 은 경

##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영상제작단동아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영상제작단동아리는 모두 4팀으로 춤에 관심있어 결성된 동아리에 비해 미약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열정과 끼와 재능을 기본 바탕으로 열심히 하는 동아리로 꼽을 수 있다.

이제부터 청소년영상제작단동아리에 좀더 접근해보려고 한다.

먼저 광명북고등학교 '활동사진'팀은 지도선생님의 열성 아래 20명의 친구들이 푹푹 뭉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활동사진'팀은 벌써 3기로 축제에서 한몫을 차지할 정도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각종 영상제작품을 출품하고 있는 유망한 팀이다.

**광**명고등학교의 '뮤즈'팀은 김호곤 학생을 중심으로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결성된지 오래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열성이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팀이다. 특히,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호곤 학생은 카메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지닌 친구로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에게도 배울점을 부여해 주는 친구로 학기중에도 시간을 내어 수시로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전시회, 축제 등도 다니면서 카메라를 통해 보는 눈을 키우고 있다.

**1**0명 내외의 중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동아리 '필름창고'팀은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포용력도 지닌 여학생을 주축으로 활동하는 팀으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에 비해 나이는 어리지만 그에 못지 않은 재능과 욕심과 추진력을 지닌 친구들과로 구성되어 있다.

**광**명고등학교의 '몰카'팀은 이번 광명비디오영상전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팀이지만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서로간에 도움이 되었기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20명 친구들로 구성되어있다.

**청**소년영상제작단의 모든 동아리팀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랑에서부터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다방면에 걸쳐 그들만의 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하나에 몰두하고 진지할 줄 아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지켜 볼 때마다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의식을 읽을 수 있으며 앞으로 영상문화를 주도 해 나갈 친구들이기에 더욱 더 뿌듯함을 안겨다 주는 그런 동아리팀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서로 눈치보지 않고 작품에만 몰두하여 작품이 완성되었을 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 ▶▶ 청소년문화의집의 추후계획

이쯤해서 동아리소개는 맺기로 하고 청소년영상제작단 동아리팀 뿐 만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보게 된다. 청소년 영상제작단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므로 아이들이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영상 읽기, 영상창조의 새로운 영상문화체험을 경험하여 제작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앞으로 바램이 있다면 각 팀별로 제작한 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작품 발표 및 상영과 더불어 함께 토론하고 조언도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편집실을 이용하여 작품에 대한 애착과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여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광명지역의 청소년영상제작단이 서로 네트워킹화 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청소년비디오영상전을 치르고 난 후

9월 8일 오후 3시.

모두 3팀이 참가한 가운데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제1회 청소년비디오영상전'이 열렸다. 작품마다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관람하는 청소년들은 박수를 보냈다.

청소년의 사랑을 다룬 단편영화와 삶의 고달픔을 보람과 희망으로 형상화시킨 단편영화에서부터 아이들의 정서와 흥미에 맞게 2001년 기아체험 때 직접 참가하면서까지 가수들의 모습을 담은 '2001년 기아체험 뮤직비디오' 및 '남자가 사랑할 때'의 뮤직비디오까지 시간이 흘러 가면서 감상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았으며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편 관람하는 아이들과는 달리영상단 친구들은 매순간 순간마다 그 작품을 평가하듯 했다.

함께 관람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의 진지함과 초등학생들의 흥미로움과 신기함을 함께 느끼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신비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시간은 흘러 모든 순서가 종료되고 비로소 '청소년비디오영상전'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매번 느끼지만 새로운 홍보방안 모색과 피드백, 참여의식 고취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추후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2회 청소년비디오영상전'을 조심스레 계획하여 영상단의 참여의식을 높여주며 영상제작의 차분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며 청소년들의 대외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기개발능력을 키워주는 등 앞으로의 해야 할 일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가는 방향성을 인식 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을 새삼 느끼게 해 준 행사였다.



# 청소년유해환경

거리조사

문화저널 특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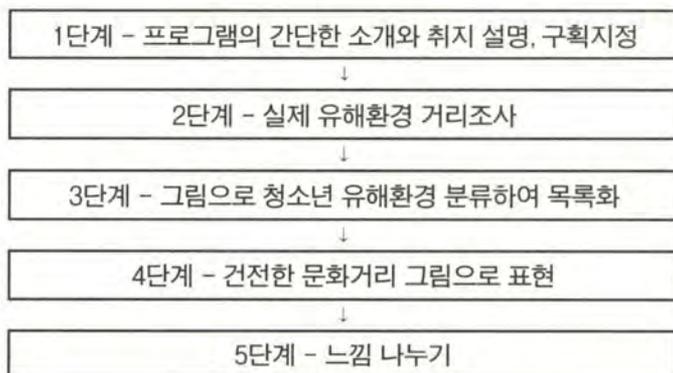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청소년이 자라는 장소는 그들이 커 나가는 방법과 같다. 청소년의 놀이터는 그들에겐 성장하는 방법이 되기에, 청소년의 환경은 그들의 삶을 결정한다. 도둑소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근거와 토대가 바로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환경이기에 청소년 보호육성의 일차적인 과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구해 내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장소는 학부모가 바라보는 그대로의 공부방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관, 전자오락실, 만화

가게 같은 곳으로 이런 장소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곳에서 사귀는 친구들은 보통 청소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즐기므로써 일단 보통 청소년들에게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생활을 위한 사회 건강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인 요소들과 청소년들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주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 및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살펴볼 때,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휴식공간보다는 유해업소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단속관련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 대책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을 조사하여 그 현황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변유해업소를 조사하러 청소년 10여명이 길을 나섰다.

## 프로그램 기획단계



## 유해업소 실태조사

구 분	장 소	업 소	개 수	비 고
유해업소실태조사	광명사거리	단란주점	6	
		나이트	2	
		호프집	16	
		비디오방	8	
		커피샵	15	
		게임방	5	
		노래방	7	
	광명공고주변	윤락가	25	
		모텔	4	
		여관	5	
		노래방	7	
		게임방	5	
		호프집	12	
		나이트	2	
합 계			116	

조사결과 호프집 32.4%(28), 윤락가 29.0%(25), 커피숍 17.4%(15), 노래방 16.2%(14), 게임방 11.6%(10), 모텔등 숙박업소 10.4%(9), 비디오방 9.2%(8), 나이트 4.6%(4)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거리가 4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이렇게 많은 유해업소가 자리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으로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 유해환경 이대로 두어야 하나?

청소년 유해환경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학교 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난무한 유해환경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나 제도적 방법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학교 정화구역만이라도 학교중심의 법적, 제도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 비행·탈선문제가 언론에 날 때마다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리법석을 떨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비행·탈선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말들이 머리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갈곳이 없어요. 만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출입에 대해 어떤 관여조차 않는 어른들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의식적 변화를 꾀하기를 바란다.

또한 청소년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합치고 꾸준히 노력하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끝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노인복지문화의 요람

## 광명보건소 노인요양센터를 찾아서



대담 | 이종락(문화교육연구소 부소장) / 김규태(보건소장)

### 전국최초로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치매센터

“ 가을이 깊어가는 9월의 오후  
 구름산 자락 밑에 단아하게 자리잡은  
 광명시 보건소를 찾았다.  
 표옥정 방문보건계장의 안내로  
 보건소장실을 방문하니  
 생각보다 젊은 김규태소장님이  
 빈갑게 맞아 주었다.  
 지난 8월 인사때  
 소장으로 부임한터라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나 했지만  
 보건소 및 노인요양센터의 현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일시: 2001년 9월 26일 오후 5시 / 장소: 보건소, 노인요양센터

문: 먼저 소장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 잠시 환담을 나누고 바로 노인요양센터에 대해 질문에 들어갔다.)

문: 개원일은 언제입니까?

답: 10월 중순경에 개원예정입니다.

문: 개원까지의 과정을 말씀해주신다면

답: 96년 센터건립이 추진되어 99년 착공에 들어갔고 2001년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건물로 다양한 요양시설이 구비되어있습니다.

###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노인요양센터

문: 광명시 노인요양센터건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링케이스라 생각되고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하는데 비해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사례입니다. 광명시의 노인들을 위해 훌륭한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수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향후 운영계획과 시스템에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이미 25명의 노인분들이 입소를 하였고 간병인 40명, 취사 4명, 간호사 및 직원등 10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의사가 1명 상주근무를 하고인하 대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2회 족탁의가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상황이 발생시 성애병원과 제휴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료와 유료의 비율이 80:20

문: 입소노인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 전체 입소인원이 100명이고 그중 80명은 생보자 가운데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자를 심사하여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유료환자인데 매월 56만3천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광명거주자 우선이고 만 65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자격기준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답: 입소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문: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답: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보건소장, 시의원, 신경과 의사, 목사님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문: 일반 사설치매센터와 시요양센터의 차이점이러면?

답: 우선 비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병원 경우 노인1인당 본인부담 100만원과 건강공단 100만원을 합해 매월 200만원의비용이 들어야 하지만 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유료환자일 경우에 56만3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의료서비스도 일반병원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 입소기간은 어떻게 되고 퇴원은 자유롭게 됩니까?

답: 네. 무료환자일 경우 입종시까지가 기간이고 본인이 원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유료환자는 6개월마다 재심사를 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 요양센터 개원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 광명시 생보대상자 87명중 현재 56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부모님을 바깥으로 모시면 안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효사상으로 거부감이 잔존하는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간호사 5명이 100명의 노인환자를 24시간 돌보는데 무리가 따를것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 보건소가 신축이전하면서 많이 변화된 것같은데 홍보한번 해주시죠.

답: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생활의료의 근거와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건소하면 예방주사모만 인식을 하시는데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실도 98년 부터 진료를 하고있고 물리치료실이 올해 1월, 치과도 5월 15일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을 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요양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장으로 활용되기를

문: 개원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부족한 인력의 보완책으로 노인요양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활동무대가 될 수있도록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문: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답: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소장님의 안내로 요양시설을 둘러 보았다. 깨끗하고 훌륭한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있도록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필요하다는 말로 대답을 마무리 했다.



## 월당선생집



월당선생집 | 강 석 기(조선)

**월**당 강석기(1580~1643)의 시문 및 저술을 그의 증손이 수집한 것을 박사수가 정리 편차하고 그것에 신원본말을 부록하여 그의 5대손 명달이 음성현감으로 있을 때인 1772년(영조 48) 인쇄한 것이다. 가화가 있는 후에 유고를 첩한 것이어서 본서에 실려 있는 것은 석기의 저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괄난,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碩期 생전에도 그의 시문이 완전히는 보존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계 김장생에 사사하여 성리학과 예가설에 관한 저서를 배우고 약관에 이미 학업이 대진했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를 거쳐, 1616년에 등재, 승문원권지정자에 선보되었다.

. 병자호란 때(1636) 이조판서로 있었으나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였다. 병구를 이끌고 빈궁을 따라 강화에 들어갔으나, 강화가 실함하여 그를 실망과 자책 속에 몰아 넣었다.

이에 앞서 딸이 세자빈(소현세자)으로 선임되었으나, 이것이 결국은 가문의 참화를 가져왔다. 청과의 화의가 성립되자 1637년 4월 세자빈이 된 그의 딸은 왕세자를 따라 심양에 들어 갔다. 그 후 왕세자는 1645년에 동환하여 동년 4월에 죽고 봉림대군이 왕세자가 되자 궁중에서 한 과부로 이미 외로웠던 데다가 김자점 등의 간계와 무고로 원죄에 몰렸다.

석기 사후 4년인 1646년 소현세자빈은 의동 분가에서 사사, 당시 칠순 노부였던 그의 아내도 참사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대신들의 신원건의가 있었으나, 석기사후 73년만인 1718년(숙종 44)에 비 로소 세자빈의 위호와 석기의 관작을 복원했다. 동년 7월에 석기는 율곡 이이를 배향한 문정서원에 증향되었다. 앞에 서가 있고 각권마다 목록이 있다. {권1}:시(성거산승축차석주음 등). {권2}:소차(옥당사직차 등). {권3}:계사등, 의(청장문왕세자행기회답의 등). {권4}:연대록. {권5}:응제록, 제문. {권6}:부록(행장 김집 찬, 묘비명). {권7}:부록(신도비명, 墓묘표음기. {권8}:부록(제문, 대전사제문 등, 만장, 신원본말, 의례문해 상(가례, 가례도,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의례문해 하(상례, 제례), 그리고 정홍명의 발이 있다.

疑禮問解

敬俠殆盡往者 天日回照寬  
杜半仲今始哀聚若干篇付  
之刺爾顧吾子一言以識之不  
倭歛祗起敬曰自切誦公名而  
慕公賢久矣 清社之初庶

事草初其能斥邪扶正激濁  
揚清主張公揚整頓朝著者  
匪以而誰也可謂中興之哲輔  
士類之宗匠也今者對公之孫  
讀公之文明白正大委曲懇切

敬俠殆盡往者 天日回照寬  
杜半仲今始哀聚若干篇付  
之刺爾顧吾子一言以識之不  
倭歛祗起敬曰自切誦公名而  
慕公賢久矣 清社之初庶

事草初其能斥邪扶正激濁  
揚清主張公揚整頓朝著者  
匪以而誰也可謂中興之哲輔  
士類之宗匠也今者對公之孫  
讀公之文明白正大委曲懇切

# 李純信

**명**종 9년(1554)~광해군 3년(1611). 조선시대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입부(立夫). 태종의 제 1왕자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손, 생원 귀달(貴達)의 손자, 아버지 진(眞)과 복주 김씨(福州 金氏) 사이에서 금천(衿川: 현 광명시 일직동)에서 출생·성장했다. 진사(進士) 김구수(金龜壽)의 외손, 경상도 병마우후(慶尙道 兵馬虞候) 윤천수(尹天壽)의 사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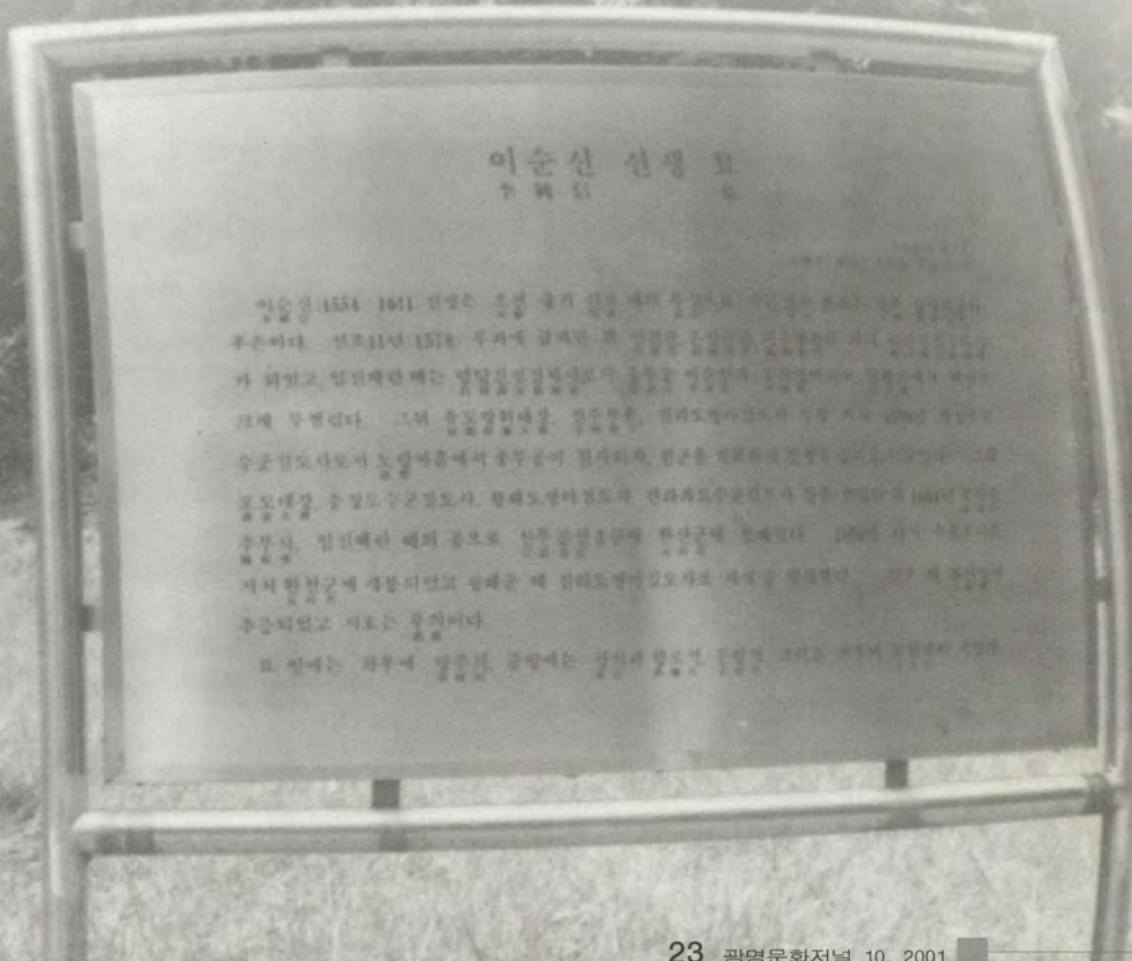
**어**릴때부터 유업(儒業)보다는 기사(騎射)에 흥미를 느껴, 25세 때인 선조 11년(1578) 무과(武科) 알성시(謁聖試)에서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이후 선전관(宣傳官)을 초임으로 운성판관(穩城判官)을 거쳐 선조 21년(1588) 의주목 판관을 지낸 뒤 혜산진 첨절제사(惠山 籤節制使)에 승진되었다. 얼마 뒤 방답진(防踏鎭) 첨절제사가 되어 재임하면서 성지(城池) 수리와 무기 보충 등 군비 확충에 힘쓰던 중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라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李舜臣)의 중위장(中衛將)으로 참전하여 당항포(唐項浦) 싸움에서 왜선(倭船)을 크게 무찔렀다. 이어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의 전부장(前部將)으로 참전하여 한산도(閑山島)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또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의 전부장으로 참여했을 때도 부산포(釜山浦) 해전에서 왜선을 크게 격파하였다. 그는 왜란중에 고령진(高嶺鎭) 첨절제사 유도 방위대장(留都防衛大將)·전주부윤(全州府尹)·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의 관직을 거쳐 충청도 수군절도사로서 장문포 해전에서 참전했고,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서 왜교성 전투에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선조 31년(1598)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서 노량(露梁) 해전에 참전하였는데 이순신(李舜臣)이 적의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자 전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듬해 포도대장(捕盜大將)이 되었으나 무고한 사람을 장살(杖殺)했다는 죄로 한때 파직당하였다.

**선** 조 33년(1600)에 복직되어 충청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했으나 재임하다가 재물을 탐냈다고 하여 파직당하였고 이해 다시 수원부사(水原府使)로 나갔으나 또 파직당했다. 선조 35년(1602)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재임하다가 파직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면직과 복직을 거듭하였다.

**선** 조 37년(1604)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공으로 선무공신(武功臣) 3등에 책록되고 완산군(完山君)에 봉해졌다. 선조 39년(1606) 외직으로 나가 다시 수원부사를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와 함께 완전군(完川君)에 개봉(改封)되었다. 광해군 3년(1611) 9월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근무하다가 별세하니 향년 58세였다. 시호는 무의(武毅)이며, 인조 때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묘는 광명시 일직동(옛 시흥군 서면 일직리)에 있으며,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 허목(許穆)이 명(銘)을 지은 묘갈(墓碣)이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망실(忘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정리 | 양철원



# CYBER

## 사이버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교육연구소 소장 | 윤 철



### 사이버문화는 새로운 생활양식이다

정보화사회,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는 말들이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사이버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다.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공간을 의미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이버문화라 함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행동, 생활양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사이버문화는 인터넷이라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이다.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특히 다양한 멀티 미디어 기술이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하면서 사이버공간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 사이버문화는 접속의 문화이다.

문화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사이버문화는 접속의 문화이며 익명성의 문화이다. 사이버세계는 아이디나 캐릭터 뒤에 자신을 숨긴 채 사이버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문화는 개방성의 문화이다. 다양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이버문화는 자율성의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존의 현실 통제에서 벗어나 제약 없이 자율적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이버 세계는 어디까지 와있나?

이러한 사이버세계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면 영국의 컴퓨터연구센터에서는 가상리허설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연극, 영화 등 각종 공연의 예행연습을 가상현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으며 3차원 신체모델링프로그램은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환경에서 선택한 의복을 시뮬레이션 해주므로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상현실에서의 가상섹스프로그램까지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세계의 출현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전자상거래 등에서 피해를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 사이버문화예술은?

사이버세계의 문화예술분야도 빠르게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현재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전 예술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실 시장에 진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 사이버문학

종이 없는 글쓰기시대를 연 사이버 문학은 인터넷 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이버문학의 대표적 장르라고 할 수 있다.

### 사이버공연

연극, 춤 등의 공연도 실시간으로 감상이 가능해지고 상황이므로 공연문화에서도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넷은 연극배우 이영란씨의 공연을 서비스해주었으며 하나로통신은 오페라 뮤지컬 등을 자사의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영화상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인터넷 시네파크에 접속하면 일반극장과 같은 분위기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인터넷방송국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전시 사이트들도 넘쳐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 사이버 세계는 현실세계이다.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면 우리는 자유롭게 사이버 세계에 들어 갈 수 있다. 네트워크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이버문화를 바르게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공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문화, 사이버세계 속에는 공유가 아니라 독점적 정보소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분명 사이버세계는 현실세계이다. 우리는 현재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혼재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중심을 잡아가지 못한다면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창출해 낼 수 없으며 혼돈으로 빠질 수도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화 - 사이버문화도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CULTURE

# 패션·가구·문화의 거리를 찾아서

문화저널 특집팀



초가을 유난히도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광명사거리에 위치한 패션 문화의 거리와 가구 문화의 거리를 찾았다.

100M미만의 패션 문화의 거리 그 입구에는

"패션 문화의 거리"라는 표지판이 유난히도 작게 보였다.

"저 혹시 이곳이 '패션 문화의 거리' 라는걸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여성류의를 판매하는 주인은 박꽃 같은 미소를 띠며 대답을 했다.

"이런 거리에 문화행사나 이벤트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좋겠죠... 옷도 사고 문화행사도 보고... 사람들이 즐겨워하겠죠..."

광명사거리 패션 문화의 거리엔 중저가 브랜드가 많다. 고가 브랜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제품성향자체가 값비싼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브랜드나 보세 옷을 많이 찾는다. 일반적으로 대형할인매장은 상시적으로 비싼 예산을 들여가며 이벤트행사를 한다.

그것도 10대들 위주의 감각적인 행사를...

그렇다면 패션 문화의 거리 광명에서는 여성류주인의 말처럼 어떤 문화행사가 필요할까?

우선 문화행사 보다는 공간이 너무 미약하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음료수 한잔 먹을 수 있는 벤치하나 없지 않은가?

문화행사 이전에 공간의 효율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이곳에 할인매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길을 가던 스물 중반의 아가씨들에게 넉살 좋게 물음을 건넸다.

"그럼요... 좋죠... 그런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다. 할인매장이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성공의 여부와 함께 지금의 패션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그리 크지 않은 듯 했다.

그렇다면, '패션 문화의 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은 뭘까?"

이러한 고민 속에 '가구 문화의 거리'로 발걸음을 돌렸다.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출입구 쪽에 위치한 '가구 문화의 거리' 표지판 주위를 봐서는 어느 방향이 '가구 문화의 거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 '가구 문화의 거리' 축제 기간인데 시민들은 많이 오나요?"

"아니요"

가구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여기가 '가구 문화의 거리' 인걸 알고 오셨나요?"

"그냥 가구점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구 문화의 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가구점들을 둘러보는 여러 시민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대답은 대동 소이 하였다.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이벤트 행사와 홍보행사를 하였던 가구 문화의 거리,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해답은 시민들 속에 있었다. 작은 벤치 하나에서부터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소박한 문화행사...

그리 큰 바램은 아니지 않은가?

# 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서울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아파트로 가득찬 광명시가 눈에 들어오고 바로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거리에 들어서게 된다. 광명시 철산동 300번지 이른바 상업지구인데 이곳은 1999년 11월 광명시에서 상업지구 한 가운데 길을 정비하고 벤치와 조각품을 설치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였던 곳이다. 거리 한가운데 수시로 연주회나 공연 등이 개최되고 그림, 시 등이 전시되고 거리의 화가들이 여유롭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그런 거리를 그려보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2년이 지난 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 문화의 거리는 활기 넘치는 유흥의 거리

해가 떨어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넘실대는 밤이 되면 이곳에는 하루의 마지막을 즐기려는 인파들로 넘쳐난다. 골레프백화점 옆으로는 노점상이 일과를 시작하고 이제는 길 한가운데 가리지 않고 다양한 품목의 노점상들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거리에서 가볍게 배를 채울 수있고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낭만적인 풍경이기도 한 노점상이지만 기업화된 노점상조직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스스로 노점들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교복을 입은 채 오락실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들, 모처럼 외식을 위해 나온 부부들, 마냥 즐겁기만 한 연인들, 한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이곳 저곳을 헤매는 취객들의 풍경이 문화의 거리 아니 상업지구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 아주 가끔씩 교회성가단에서 복음송을 불러주는 것 빼곤 이렇다할 문화적 내용이 채워주질 않는 이곳은 여전히 문화와는 다른 세계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 문화의 거리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만들어야

흔히들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만든 책임에 시나 행정기관을 손쉽게 들먹인다. 그러나 예시당초 이곳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행정당국에만 모든 책임을 묻기에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까? 광명시의 주인이 바로 시민들이라면 문화의 거리에 내용을 채워야할 몫은 상당부분 시민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일산 호수 청소년의 거리는 시민단체가 나서 지역의 예술인들을 설득하여 1년이 넘게 자원봉사로 내용을 채워나가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누구보다도 광명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서야되지 않을까? 문화의 거리 끄트막에 있는 표지판이 묘한 느낌으로 눈에 들어온다.  
The street of food (음식의 거리?)



바뀌는 문화

# 주민자치센터



"신나는 장구 가락,  
마음을 가다듬어 써내려가는 서예,  
땀을 뻘뻘 흘리며 런닝머신을 달리는 아주머니"  
동 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이후의 모습이다.

"신나는 장구 가락, 마음을 가다듬어 써내려가는 서예, 땀을 뻘뻘 흘리며 런닝머신을 달리는 아주머니"

동 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이후의 모습이다.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7월 전구구 94개 시, 구 278개 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우리 시에서도 1999년 하안4동, 광명5동 두 개동에서 시범 실시된 후 2000년 2월 조례 제정으로 18개 동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운영하는 형식이다.

18개 동의 프로그램을 보면 많게는 10개 가량의 프로그램, 적게는 3개 가량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또한 광명5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하안3동에는 헬스 시설이 있어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설면에서는 각 동의 사용가능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검색부스, 회의시설, 비디오 및 오디오 감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변화는 시대의 흐름속에 주민 참여를 위한 요소로 그동안 높게 여겨지던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는 주요한 단초라고 평가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동의 기능 축소로 정원이 줄어든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행정업무와 다른 지역 문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단순하게 강사를 섭외하고 시기가 맞아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사람이 많이 오면 잘된 것이고, 적게 오면 실패한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 시 차원에서 문화 공간의 배치, 시의 대표 문화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의 전략적 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수렴 시스템이 아닌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설문지를 돌려 간단하게 조사하여 "의견 수렴을 했으며 이대로 진행합니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형식적 대중주의가 아닐까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문화 프로그램과 시설은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계기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발전, 즉 자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기본 축으로 봐야 하고 문화복지를 또 하나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 인적 자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에서 정책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위한 주요한 포스트가 되고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좀더 세밀한 분석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송승영 부천문화원장



## 부천 문화원을 찾아서

한옥현/정현주(문화저널 취재팀)

시원한 가을 햇살 속에 우리는 광명시와 비슷한 베드타운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부천 문화원을 찾았다. 인구 85만, 광명시의 2배가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 부천, 부천판타스틱영화제(PiFan), 에니메이션페스티벌(PISAF),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많은 문화를 개발 발전시키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부천, 과연 그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를 문화원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을까? 어렵사리 길을 물어 찾아간 부천 문화원은 부천문화의집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 시골 학교 같은 분위기의 3층 건물로 건물 앞에는 운동장이 있고 한쪽 구석에는 채소를 가꾸는 밭이 있었다.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천 문화의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천문화의집은 안내데스크, 정보자료실, 로비·라운지, 인터넷 부스, CD부스, 비디오부스, 문화 관람실, 문화사랑방(작은도서관), 문화 창작실, 개인 연습실, A/V감상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문화를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모든 문화의집이 이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 유독 타 문화의집과 달리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전용 컴퓨터 공간으로, 어린이를 위한 섬세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고 곳곳에 전시되어있는 많은 작품들은 모두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든 작품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편**안한 분위기에 취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분위기의 사무국장님을 만났다. 문화원 사무실로 들어선 순간 전국의 문화, 역사, 예술에 관련된 책들로 사무실 벽을 가득 채운 많은 책들을 보며 적잖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문화의 재발견이라 하여 발간된 많은 책들과 작업중인 자료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사무국장님을 보며 이웃집 어르신 같은 인자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01 지역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1950년대 부터 10년 간 발간된 잡지들의 표지 얼굴과 관련된 '전란의 포화 속에 핀 꽃-잡지 특별 전'의 설명과 안내 책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의 '6·25'인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6월 25일을 전후로 하여 시기 적절하게 특별 전을 열어 시민들에게 역사 인식을 제공하였으며 책자를 통해 다시 일깨워 주는 부천문화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 한 권을 발간하더라도 2~3년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처럼 부천 문화원만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편**재 부천 문화원은 부천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더욱 발전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부천문화원은 앞으로 '궁도 전통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8mm/16mm 영상 전' 프로그램으로 영상전의 주제와 20분이라는 제한된 부문아래 영상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문화원과 문화의집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다.

"문화는 모든 것이 연계되어있습니다. 서로 지원하고 연결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의 말씀처럼 부천 문화원은 고유 업무인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을 선도하고 문화의집은 현대 문화 예술 정보와 주민들의 취미생활 강화를 보완하여,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구축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문화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천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문화원과 문화의 집 등 관련기관간의 유대관계의 필요성과 지역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만들어야한다는 뚜렷한 신념이 지금의 부천문화원의 발전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인지 "문화란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사람의 손길이 스치는 예술창작까지 이 모두가 문화이다."라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메아리쳤다. 항상 특색 있는 새로운 역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부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 광명 시네마 7070을 다녀와서...

정현주(광명시청소년문예의회) | 정은경(광명문화원)

이번 해는 여느 해보다 가을이 짧다고 한다. 이 짧은 가을에 새로운 볼거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광명의 중심부인 상업지구에는 일명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젊은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창출하며 활기에 넘치는 만남의 장소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많은 시설들 속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극장문화를 펼쳐갈 『시네마7070』이 문을 열었기에 그곳을 함께 둘러보려 한다.

『시네마 7070』과의 만남은 9월 13일 늦더위가 한창인 한낮 이었다.

광명문화의거리, 덕수빌딩(롯데리아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그곳'하면 '아! 그곳' 할 정도로 찾아가기 그리 어렵지 않았다.

## 『시네마 7070』은 이런 곳이다.

'7070'. 의외의 의미를 담고있었다. 애초의 개관예정일은 7월 7일. 그 날짜를 의미로 담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늦어진 2001년 7월 13일에 개관식을 하였고 그 이후 광명시민들 사이에서 구전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영화관에 들어서서 첫 느낌은 깨끗한 인테리어와 상냥한 직원

들의 웃음이 먼저 시야에 띄었고 대기실에는 상영시간을 기다리는 친구사이, 연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상영관은 총6개관으로 1개월의 시간동안 평균 10여편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로 4층에 1, 2, 3관이 5층에 4, 5, 6관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5층에는 유아(2~4세)들을 위한 "어린이놀이방"이 마련되어있어 아이가 있어 영화관람에 염두를 갖지 못하던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크린과 좌석은 각 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알맞은 음향시설은 영화를 즐기기에 만족스럽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러 서울로 찾아가는 등 힘들게 영화관람을 즐겼는데 그에 반면 『시네마 7070』의 개관으로 만족스러운 시설을 광명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되어 시간적 여유와 문화적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주목할 만하다.

## 『시네마 7070』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좋은 시설에서 편안한 관람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더 불러 뭔가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진다. 『시네마 7070』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펼치고 있었다. "남녀 커플을 위한 할인영화관람"은 관람료보다 3,000원 절약은 기본. 여자고객에게 장미꽃 한송이까지 안겨주었다고 한다. - 여-여 커플의

만만찮은 기분좋은 잔소리를 들어야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또한 개관기념으로 "미아자키 하와오" 감독의 회원초대 무료 영화상영을 계획 중이라 하니 회원가입으로 할인혜택과 영화초대의 특전을 누리봄은 어떨까. 『시네마 7070』의 회원은 회원비·연회비 무료로 평일에 한하여 500원 할인과 7회 관람에는 1회 무료초대권을 증정, 마일리지 정립 및 영화제·시사회 무료입장 초대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에는 회원카드 발급비용 500원을 개인부담 하여야 한다)

### 또다른 기대를 갖고..

『시네마 7070』이 새로운 문화매체로 자리한지 3개월 남짓. 『시네마 7070』과 첫만남(?)을 갖고 돌아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관람객과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은 『시네마 7070』과의 첫인상에 대해 "우리시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시설과 음향이 너무나 좋았어요. 다음에 영화를 본다면 꼭 다시 올 거예요."하며 즐겁게 답변을 해주었다.

『시네마 7070』과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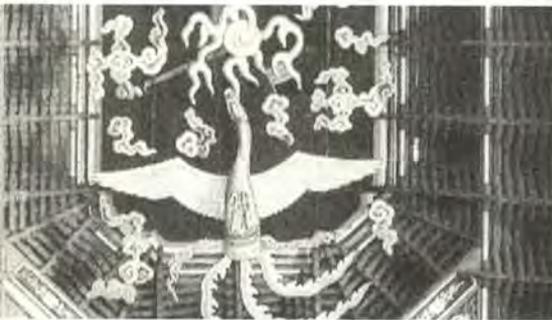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 라는 핑계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시설로만 비교하자면 대도시의 화려한 극장들과 맞설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며 우리가 거닐곤 하는 거리에 힘들이지 않고 찾아갈 공간이 그냥 그렇고그런 공간이 아닌 우리가 선택할 기회로 준비된 시설이 기다리고 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시네마 7070』의 간절함이 곳곳에 배어있었다. 우리 역시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 시설을 우리가 아낀다는 생각으로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사랑해야겠다. 『시네마 7070』과의 만남은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한 설렘이었다.

### 『시네마 7070』 살짝보기

- ▶ 상영시간 : 첫상영 오전 10시 30분  
                  마지막 상영 오후 11시 30분
- ▶ 상영관 위치 : 4층 - 1관(160석), 2관(138석), 3관(128석)  
                  5층 - 4관(160석) 5관(138석) 6관(128석)
- ▶ 인터넷 예약 : daum.net에서 영화사이트  
                  → 지역/광명 → 시네마 7070
- ▶ 상영관련 문의및안내 : 02) 2066 - 7070

# 시네마 7070



## 우리문양 이야기 봉황



김 한 담 | 오리 이원의 기념관 관장

**봉황의 유래 하나** -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맑은 기운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땅을 이루고 있는데 홀연히 천제의 자손이라는 '여와'와 '복희'가 이 땅에서 아담과 이브마냥 인류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 중 '여와'는 진흙으로 소중하게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입김을 불어넣어 자손을 퍼뜨리는데 나중에는 이도 지겨워 허리끈을 풀러 진흙에 담귀 휘두르며 인간을 만들어 냈다.

**봉황의 유래 둘** - 태초에 하늘에 해가 열 개가 있어 낮에는 너무 덥고 물이 말라 목이 마르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해가 지면 너무 추운 날이 계속되어 추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모든 인간이 '천제'에게 온화한 낮과 밤을 원하게 된다. '천제'가 신하 '예'에게 당신의 아들인 태양을 거두라는 명을 내리고 '예'는 지상으로 와서 아홉 개의 화살로 아홉의 태양을 떨어뜨리는데 당신 자식의 죽음을 목격한 '천제'의 노여움으로 다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인간사회에서 슬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신화시대 최초로 완벽한 미모의 여인인 예의 아내 '향

아'는 '예'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서왕모'가 불사의 영단을 두 알 주면서 한 알을 먹으면 불사요, 두 알을 먹으면 영원히 창생하리라 했던가. '향아'가 천계에 오르코자 하는 욕심으로 남편 예 몰래 두 알을 모두 먹자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바로 천계에 들자니 남편을 배신한 년이란 욕을 먹을 것 같아 잠시 달에 머물고자 하는데, 달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의 피부가 울룩불룩해지며 두꺼비 모양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진정 창생(蒼生)하였다나.

**봉황의 유래 셋** - 태초에는 인간과 신의 영역이 나무 한 그루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나무는 둘레가 200리이며 높이는 천장에 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신선 정도 되는 인간이 아마 이 나무를 통하여 신과 인간의 교통을 중재하였다고나 할까. 중국 화하족의 시조인 황제가 아마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텐데 요즘은 무당이라 칭한다. 신의 말씀은 무당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나무는 곤륜산 정상에 있는 나무로 해가 뜨면 이 나무에 머물고 있는 천제의 닭이 울고 여명이 밝아 오면서 인간세상의 닭이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토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와는 후대에 내려올수록 향아, 서왕모 등으로 그 이름을 바꾸는 여신으로 변화하고 상서로움과 창조 의미 내포하고 있는 삼청조, 봉새, 오색 영봉한 세 발 달린 까마귀, 천계의 닭 등은 산해경이란 중국의 기사에서 봉황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봉황은 우리 신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봉황은 동방의 해 뜨는 곳 곤자국에서 나와 사해의 밖을 날아 곤륜산 약수에 깃을 씻고 풍혈에서 잠을 자며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무르지 않고 대나무 열매 외에는 살아있는 곤충과 풀을 먹지 아니하며 예전의 물만 마시고 날아오르면 못새가 모두 따른다는 신화와 상상 속의 새이다.

봉황은 수컷인 봉과 암컷인 황이 합쳐진 말이나 원래는 봉만 있었고 암수를 떠나 하나의 신격화되어 있는 상상속의 새를 신화적 요소와 음양의 조화를 피하면서 굳이 암수로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번 날개 짓에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른다는 봉새도 또한 봉황의 일종이며 그 존귀함으로 인하여 황제와 황후를 가리키기도 하며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의 육체적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여 진실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니 요즈음의 세태로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 할 정도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사령이란 이름으로 봉황, 기린, 거북, 용이 등장하는데 고구려는 당시 중국의 한, 수, 당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으로서 중원문화의 영향이 아닌 동아시아 민족 특유의 신화체계와 종교를 형상화했다고 본다. 이는 산해경에서 보이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 여와, 항아, 서왕모, 달, 삼신도, 청구국, 군자도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자 이전의 신화시대 수수께끼와 맞물려 있으며 후대에 내려오면서 주역에서 파생된 사신이라 지칭하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변질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태초의 신화를 안고 있는 수학적 기호라고 본다.

역사 기록 이후의 유물을 보면 봉황은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의 전돌, 백제용봉대향로 등이 있고, 경복궁의 근정전 등, 궁궐의 정전 천장에 왕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있으며, 일요일 날 KBS2 TV의 진품명품이란 프로그램 중에 간혹 봉황의 머리를 조각한 비너가 나오는데 이를 봉잠이라 부르고 경복궁 자경전 담벼락에 봉황의 문양이 고고함을 자랑하기도 한다.

또한 지금도 대통령의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받은 우등상 등 상장의 좌우에 형상화되어 있는 문양으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숨을 쉬고 있다.

**동**양 학문에서 봉황은 다섯 종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붉은 색의 것을 봉이라고 하고 자주색의 것은 악작, 푸른색의 것을 난이

라고 하며 노란색은 원추, 흰색은 홍곡(천아)이라고 한자로 표현한다. 중국에서는 상상 속의 새인 봉황을 용이 구름속에서 학과 교미하여 낳았다고 한다.

이렇게 태어난 봉황은 열 가지 동물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모양새라 하는데 앞모습은 기러기, 뒷모습은 기린, 턱은 제비, 부리는 닭,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이마는 황새, 뺨은 원앙새, 몸의 무늬는 용, 등은 거북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못 집승의 다양한 장점을 모으고 이에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열가지 동물의 성격은 제왕의 구비조건으로 표현하는데 -기러기는 임금과 신하, 친구, 부부간의 신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인물을 상징하며 -공자가 탄생할 때 출현했다는 기린은 슬기로운 재주를 갖춘 현인을 뜻하고 -제비는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여성으로 비를 오게 하는 재주와 부귀와 장수를 상징한다. -닭은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맨 처음 감지하는 동물로 악귀를 쫓고 착한 신을 부르는 영험을 상징하며 -뱀은 풍년과 다산으로 표현하고 -물고기는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있으며 물고기의 비늘이 장수의 갑옷과 닮아서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며 -고귀함과 고결함,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학과 -일평생 하나의 짝과 행동하는 부부애의 상징으로 내분이 없는 가정과 국가를 상징한다는 원앙새 - 남성, 창조, 하늘, 고귀함, 불굴의 의지, 뛰어난 인물의 상징인 용 -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며 불의 재앙을 막아주는 물의 신 거북이의 형상과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봉황이라 보통 지칭한다.

**또**한 다섯 가지 특징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머리가 푸른 것은 덕(德)을, 목이 흰 것은 의(義)를, 등이 붉은 것은 예(禮)를, 가슴이 검은 것은 지(智)를, 배는 신(信)을 각각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봉황의 성격을 왕이 갖추어야 한다하여 임금의 옷에 봉황을 수놓은 흥배가 있고 경복궁을 비롯한 왕궁의 여기 저기 봉황을 장식하여 봉궐, 봉문, 봉거(수레)라 했으며 왕도를 봉성, 궁중의 연못을 봉지라 하며 왕과 그 주변을 성스럽게 치장하고 미화하였다. 고귀함과 상서로움, 그리고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봉황은 그래서 공주가 시집갈 때도 봉대라는 비단 띠를 두르고 이 외에도 봉황을 새긴 비녀인 봉잠, 봉황의 꿈지 모양의 부채인 봉미선 등의 여성용 소지품이 있었다. 물론 18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하자 사대부 아낙네조차 궁궐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리에 이러한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회회낙락하며 그 유물들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지만, 또한 평생지기라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봉려라고 이름하며 아름다운 누각을 봉루, 피리, 가야금, 거문고 등의 아름다운 음률을 봉음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동**방군자지국에서 태어났다는 봉황은 민화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지배계층인 왕족과 양반 계급뿐만 아니라 서민 등이 즐겨 찾은 민화와 무속신화에, 그리고 외래종교인 불교의 신앙체계에도 흡수되어 불교벽화에도 등장하는 아름다운 상상의 새 봉황은 인류 창조의 신화를 가슴에 품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



## 광명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박은정 단무장을 만나서 1인3역의 다재다능한 일꾼

일시 : 2001년 10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시립합창단 사무실 / 인터뷰 : 이종락

문: 요즘 근황은 어떠합니까?

답: 지난 9월 15일 청소년무용단 창단공연을 성황리에 끝내고 10월9일부터 13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오페라 라보엠에 소년소녀합창단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26일 청소년교향악단 가을맞이 가곡의 밤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문: 직책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답: (웃으며) 다 연관이 된 건데 광명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전임지휘자겸 단무장을 하고 청소년 교향악단 트레이너, 청소년 무용단 기획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 매우 바쁘실 텐데, 전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명에서 일한 지는 몇년됐습니까?

답: 성신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로 유학가서 4년간 성악과 지휘를 공부했습니다. 광명에는 1991년에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을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답: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문제를 갖고 찾아와주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힘들 때는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받을 때 음.. 예를 들면 제가 1인 다역을 하는 것에 욕심이 많다고 벽안시 할 때 참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해 고민없이 가볍게 말하는 것도 더 힘이 들게 합니다.

문: 광명의 지역문화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신다면

답: 10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 사견으로 예술은 꽃과 같다 생각합니다. 꽃은 없어도 살지만 꽃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가를 이해하고 애정과 관심으로 돌볼 때 문화예술이란 꽃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문: 광명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답: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꿈이 있다면 우리 나라 최초로 지역에서 청소년종합문화예술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무용단도 전국에서 광명시밖에 없는데 많이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박은정 선생은 조목조목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녀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원하며 인터뷰를 마칠 무렵 옆 강당은 벌써 많은 학부모들이 연습을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  
추석연휴를 마치고  
박은정 선생을 찾았다.  
가을을 곱게 하는  
부슬비가 내리는 오전 무렵  
박은정 선생은  
진한 원두커피 향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다.  
”



# 사랑

저자 | 김용택 (이레출판사)

가을산에 오른적이 있다. 욕심이 되어 보이는 노인의 손에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오래된 시집이 들려 있었다. 문득 시집이 그리웠다. 그리고 오래된 시들이 읽고 싶어졌다.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시집처럼....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싶듯이 시인에게는 좋은 시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이 <사랑> 시집은 시인 김용택이 좋은 시들이 묻혀 있거나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는 게 아쉬워 "가슴에 환한 등불이 되었던" 사랑시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가슴에 환한 등불이 되었던" 사랑시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한국 설화나 옛 시들에서 보이는 사랑의 수준은 마음에서부터 나히덕, 함민복 등의 현대시에서 보이는 사랑의 직설적이고 때로 불꽃 같은 표현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사랑의 모습들이 들어 있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애간장을 다 녹이며 써낸 시인들의 시 안에서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는 지 잊었습니다  
내 팔은 울고 싶어합니다

내 어깨는 울고 싶어합니다  
하루 종일 빠져 나오지 못한  
슬픔 하나 덜컥거립니다  
(이성복 "울음" 중)에서는  
사랑의 끝없는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인들은 사랑을 노래해 왔다. 아니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어깨에 일어설 수 없는 짐이 지워질지라도 시인들은 빛나는 사랑 노래들을 불러 왔다. 그 사랑의 빛을 등대 삼아 우리의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속으로 묻혀가는 아름다운 사랑시의 재발견 <사랑> 시집에는 잊혀져가는 옛 시인들의 시들이 실려 새롭고 그 의미를 발하고 있다. 엮은 이는 "낡을수록 좋은 것은 사랑뿐이어서, 낡고 바랜 낡은 시집들 속에서 사랑의 시편들은 손안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말한다. 진정한 사랑도 이별도 없다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갈 때까지 가버린 이 황량한 모래밭만 같은 세상, 그리하여 훼손될 대로 훼손되고 상처 받을 대로 상처 받은 자연과 인간 정신. 그래도 시인들은 노래한다. 인간과 자연과 사랑을 위해 목놓아 노래 부른다

가을날 사랑하는 이와 동네 벤치에 앉아도 좋고,  
산에 올라 맘을 닦으며 외아도 좋을시집....  
사랑.....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급박한 세상에 아직도 미련스럽게, 여전히 고집스럽게 고유한 우리네 토종 생활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만의 맛과 멋이 배어있는 생활풍속과 그것을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책. 솟장이, 대장장이, 왕골장이, 짚신장이, 배장이 등 솟씨를 내서 우리네 전통적인 서민생활을 이어온 토종지기들의 삶과 맛을 컬러사진과 함께 꾸밈없이 풀어냈다. 토종 고 쓸쓸함, 아니 위대함에 대하여산에서 매를 받아 부리는 마지막 매사냥꾼 전영태씨(85)는 봉반이(매사냥 총지휘자)다. 평잡는 게 매라면 매잡는 게 전씨다. 버림(매 얹히는 장갑)에 수진이(손수 킨 매)를 얹힌 모습이 고려적 '옹방'의 매사냥꾼 기품이다. 매는 영리한 짐승이라서 "애기가 평 나간다" 하면 매가 알아듣는다. 쇠뿔을 얹게 깎아 만들기도 하는 시치미는 매의 꼬지에 달아준 '매주인 감별 꼬리표'다. 여기에 봉반이의 주소·이름을 적어 놓는다. 삼국시대 때부터 일제시대까지 매사냥이 성행할 무렵, 간혹 사냥을 나갔다가 매를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이때 임자없는 매를 받아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시치미를 다는 경우가 많았다. '시치미떼다'라는 말은 이로부

터 유래했다. 끈에서는 심메마니(홍종덕·정병국·양승철·김영재), 약초꾼(김영복), 송이꾼(방경원), 석청꾼(최근성), 초막농사꾼(고황웅), 독살 어부(임용주), 죽방렴 어부(임권택), 해녀(고남진), 소금꾼(이몽룡), 굴피집지기(정상홍), 남사당 앞쇠(김기복) 등의 '토종 일꾼'들이, [장이]에서는 솟장이(김성필), 대장장이(조수익), 왕골장이(방금선), 짚신장이(문복선), 짚풀장이(서만대), 배장이(조계옥·남기옥), 모시장이(나상덕), 무명장이(백문기), 명주장이(조옥이), 쪽물장이(정관채), 웅기장이(이무남), 옛할머니(장옥례), 울창이 국수장수(신보현) 등의 '토종 장이'가 나온다. 400여컷의 생생한 현상사진은 1차 사료를 겸한 '토종 문화실록' 노릇을 한다. 각주격인 '겉들어보는 토종 문화'란도 흥미롭다. 기령 고려시대 성리학자 이곡이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절개있는 부인 이야기를 한 가 전체 작품 '죽부인전'. 거기서 유래한 '제2의 부인' 죽부인. 예로부터 아버지의 죽부인은 아들이 깨안할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었다. 부친상 때불에 태워주었다. 조상들은 생활용품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 장이

저자 | 이용한(실천문화사)



# 과천마당극제를 다녀와서...

「온 도시를 수놓는 연극의 향연, 과천마당극제」

문화의 집 | 신라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날씨만큼, 어느덧 가을바람이 곳곳을 채우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실이 많이 나는 고장이었을 것 같은 짐작을 하게 하는 과천(果川)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열흘 정도의 일정으로 과천마당극제를 열어왔다.

**벌**써 5돌째를 맞이하는 과천마당극제는 1997년 ITI총회 및 세계공연예술축제의 일환이었던 「세계마당극 큰 잔치- '97경기-과천」으로 출발하여 「98과천 세계 마당극 큰 잔치」, 「마당 '99과천 세계공연 예술제」로 이어져 왔다. 3회의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과천시에서는 2000년 1월 17일 「과천마당극제」라는 명칭을 조례로 확정하였다고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 관객, 작품의 전문성 및 다양성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해온 과천마당극제는 초기에는 과천 시민회관 일대에서만 진행되던 공연을 시민회관, 관문체육관, 운운사 소공연장, 관악산 입구 소공연장, 3단지입구 소공연장 등으로 공연의 장소를 시의 모든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있는 곳만이 아니라 주택단지, 학교 주변등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찾아가는 문화행사로서의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려하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도 실시하였다. 공연 면에 있어서는 「관객과 함께, 삶과 함께, 열려진 세계로」라는 주제 아

래 국내외 43개 작품이 공연되어, 부문별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등으로 구분되는 마당극과 연극, 대동놀이 및 거리연희 등 다양하게 기획하고 특화하여 우리 앞에 선보였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관객에 있어서도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1만명을 넘었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의 경우를 보더라도 올해까지 약200만명이 활동해오고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풍성한 축제가 되고 있다.

**9**/14 ~9/23일간의 다채로운 행사로 관객의 입장에서 무슨 작품을 보아야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는데, 폐막식 날 2편의 공연을 예약하고 약간은 설내이는 마음으로 첫 번째 공연을 기다렸다. '손 꼬모 손'의 카리브의 열풍은 중남미인들의 열정적인 삶의 정서를 담고있는 살사춤의 각 변천과정과 음악이 발생하게 된 사연들을 극으로 구성한 작품이라는 해설을 보아온 나로서는, 예부터 가무를 즐겨온 민족의 후손답게 기대가 많았던 작품이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한 탓일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댄스와 귀에 익은 음악들, 한번쯤 스포츠 댄스를 배워본 사람들이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중남미춤이 세계 보편화되어 한국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낯이 익은 거라고 자위한다하더라도 마당극제 보다는 음악, 댄스 페스티벌에 어울릴 것 같은 극의 진행은 마당극의 취지에 아쉬움을 남게하기에 충

분했다.

6시 공연인 HOBT의 '평화만들기'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창작품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독특한 인형제작과 조종술을 발전시켜 거대한 인형들을 중심으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과 영적인 세계까지도 표현해 내고자 했다. 태초의 생명의 창조에서 인간의 탄생, 그리고 그 인간의 이기심(전쟁등)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 그로 인해 다시 인간에게로 되돌아오는 화, 즉 인간 스스로의 자기 파괴적 모습을 통해 인간과 인간이 혹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을 모색해 보게하는 '평화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보여준다. 현재 대두되고있는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 특히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적인 요소들에 대한 상징적이고 사회 풍자적인 특징이 두드러진작품이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미국본토의 전쟁준비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주제는 더 빛을 발하는지도 모르겠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인지, 미국인들만의 평화를 위해서인지 모를 지금의 현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자'라는 말은 공허하게 놀이마당을 울려대고 있었다.

작품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극이 끝나갈 무렵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연자들에 의해 마련된 참여 유

도가 그러하다. 마당극이 '열린공간'에서 관객이 아닌 관중으로서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또 요청되는 극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마당은 우리의 일터이자 쉼터, 놀이터이자 대화의 광장이고 뭔가



불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판이기도 하다. 마당극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 즉 대중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관심거리를 우리의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계승해오는 과정에서 극으로 표현한 연극의 한 형태인 것이다.

늦은 저녁의 쌀쌀함도 잊어버리고 어설피게나마 관중들이 공연속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도 마당극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 아니었나싶다. 공연을 한발짝 떨어져서 관

망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마당극을 제대로, 또 재미있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관객 스스로 '능동적' 관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나로서는 공연을 보다만듯한 설익은 느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했다.



# 세계 도자기축제 흙으로 빛나는 미래

강은미 | 오리아원익기념관 간사

"엄마! 좀 일찍 좀 깨우지 그랬어?"

"니가 고등학생이냐? 왜 아침마다 못 일어나?"

전쟁이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여덟살 때부터 스물일곱 지금까지 아침의 기상은 정말로 전쟁이다.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부리나케 택시를 타고 광명문화원 분수대로 달려갔다.

아빠사 모두다 다~ 모여있다.

우리는 광명시민의날 행사도 함께 이천도자기 축제 마당에서 열려 지역분들과 함께 일명 관광버스에 올라탔다.

그리 멀지 않은 광주행사장으로 도착했다.

세계 도자기 축제는 광주 여주 이천을 시작으로 각 세 개의 도시에서 펼쳐졌다.

아쉽게도 여주를 가지 못하고, 광주와 이천을 둘러보았다.

## 왕실자기, 조선백자의 고향 광주행사장

광주는 조선왕실의 관요 사물원 분원이 500년 가까이 설립되어온 유명한 도요지로 세계 최고의 명품의 백자를 생산해온 곳이다.

백옥보다 아름다운 질량감, 당대 최고의 백자 제조기술을 지닌 사기장의 흙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행사로는 동북야도자교류전 : 한·중·일 도자 교류사, 한국전통·현대도자전 : 우리 도자의 오늘과 내일, 웅기전 :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생활용기로서 특유의 서민적 정서표출, 조선도공후예전 : 조선도공의 전통과 혼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전시를 볼수 있다.

흙과 도자를 이용한 참여이벤트로는 도깨비나라 : 착시효과를 주어 표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공원과 사기장의 혼 : 도자기전통과 명성을 재조명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광주행사장은 다양한 이벤트로 도자기 축제를 한껏 빛냈지만, 내심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자기에 대한 체험이나 학습현장이 미약하다. 또한 조선백자의 혼을 느낄수 있는 행사는 오직 전시뿐이었다. 전시가 아닌 감동이 더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 일행은 다음 행사장인 이천으로 향했다.

## "이천" -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열리는 곳

우리나라 산천 어느곳 하나 우리 마음에 정겹게 와닿지않는 곳이 없으되, 특히 이천은 그 이름만큼이나 정겹게 다가온다. 인구 19만명의 전형적인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지만 땅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아 우리를 이끈다. 광주산맥에 자리 잡은 진산 설봉과 북하천, 송곡천, 청미천은 그 유명한 이천 쌀과 복숭아는 물론 온천이라는 천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사는 이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에 눈떠 빛나는 문화재는 물론 수많은 교육시설이 있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천은 스러져버려 우리를 아리게한 세계도자사에 빛나는 조선백자의 전통을 1960년대 들어 화려하게 되살려낸 곳이다. 사기장의 혼이 시공을 넘어 이곳에 다시 자리하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문화적 자존심을 되돌려 준곳이다.

## 기획전시 - 세계도자 문명전

동양과 서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개되는 이 전시는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도자 발달사를 비교하여 동양 도자의 지역적 특징은 물론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백자로 이행되는 각각의 양식과 미학적 특징을 보여줄 것이며, 서양부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양도자 발달사를 조명하고 동서 도자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도자의 정수들도 함께 전시되었다. 이 전시를 위해 중국의 북경 고궁박물관, 일본의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 아이치현 국립도자자료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호림박물관 등 동양의 유명박물관들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스위스의 아리아나 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 명품 340여 점이 선보였다.

오랜만에 좋은 구경을 했다. 그리고 마음한편이 따뜻해졌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도자기축제에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었다면 더 없이 좋았으리라....

# 재미있는 유머시리즈

-문화저널편집부-



## 정확성

현대 여성들은 꼼꼼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항상 딸에게 '정확성'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딸이 어느 영화사의 배우모집에  
 응모하여 심사를 받고 돌아 왔다.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경과 보고를 했다.  
 "예선은 통과했어요. 내일이 본선인데요.  
 스무 명이나 되는 심사위원의 눈이  
 서른 일곱씩이나 저에게 집중되잖아요.  
 정말 소름끼쳐 죽을 뻔했어요!!"  
 "뭐라고!! 20명이면 눈은 40개 아니냐??  
 혹시 심사위원 중에 애꾸눈도 있었냐?"

"아니요!! 심사위원 세 명이 저에게  
 윈크를 했거든요!!"

## 끼질끼질

### 조폭과의 소개팅

내친구 K양이 소개팅을 했답니다.  
 소개받을 남자는 다름이 아닌...  
 산만한 덩치에 깡두기  
 머리를 겸비한....."행님~!"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깡두기는 외모와는 달리  
 무지하게 수줍음을 댔습니다.  
 깡두기 : (빨쫂...;;)  
 K양 : 저기.. 이름이 모꼬?  
 깡두기 : 이름이... 저기... 말하기가...쫂...;;  
 K양 : 개안타~ 말해바라~~~  
 깡두기 : 이름이 쫂 그렇다 아이가...  
 K양 : (이름이 답따 촌스럽나보재?. 팔복이...  
 촌삼이... 그정도것재...)뭔데~ 말해봐라.  
 깡두기 : " 초 ! 룡 ! 이 ~ ♥ "  
 K양 : 헉! -0-;;

## 성적은 이렇게 올린다

- 채소가게 주인 ⇒ 쓱쓱 올린다.
- 점장이 ⇒ 점점 올린다.
- 의사 ⇒ 한방에 올린다.
- 성형외과의사 ⇒ 몰라보게 올린다.
- 구두미화원 ⇒ 반짝하고 올린다.
- 백화점 사장 ⇒ 파격적으로 올린다.
- 합기도 관장 ⇒ 기차게 올린다.
- 총알택시기사 ⇒ 항상 따블로 올린다.
- 목욕탕집 ⇒ 때를 기다린다.



# 쉬어가는 퍼즐 코너

# Fuzz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가로

- 오리라는 호를 가진 광명시가 배출한 위인
- 신라 때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단체
-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의 음사(音寫)인 보리살타(菩提薩陀)의 준말
- 서류나 구두로 특정의 사항(행위)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사표시
-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
- 수증기가 지면 가까운 기층에서 응결되어 떠 있는 현상
- 그늘과 그림자
- 음악을 현실의 음으로 실현하는 행위
-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 군대
- 1885년(고종 22)에 고종의 허락과 미국인 선교사 H.G. 앨런의 주관 아래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 세로

-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순신(李舜臣) 휘하의 중위장(中衛將)으로 옥포(玉浦) 등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광명의 위인
- 활시위에 오늬를 메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반동으로 날아가게 된 물건
-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그 바람직한 행동기준
-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두해살이풀. 맥주의 주원료
-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상)
- 설면(舌面)과 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쌀과 누룩으로 빚은 한국 고유의 술
- 조선 제16대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비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의 묘소
- 조선시대의 환관
- 사단이나 여단보다는 작고, 대대보다는 큰 행정 및 전술단위 부대

(정답은 p.58)



# 21세기 자원봉사만이 희망이다.

강찬호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담당

21세기, 자원봉사만이 희망이다.  
 많이 들던 문구이다.  
 모 저자의 책을 '사람만이 희망이다'에서 따온 것이다.  
 사람만이 희망이고, 자원봉사만이 희망이다. 21세기는, 우연이지만 이 두 개의 화두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자원봉사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개의 화두가 던지는 의미는 분명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속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말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을 빌리자면, 사람만이 희망이고, 이는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의미로도 확장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이 주인이 되는 세상, 자본의 힘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사람을 언급하고, 자원봉사를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낡고 구시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바라는 세상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만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를 통해 세상을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또 하나의 삶과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 이렇게 자원봉사는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인간적이다.

이제 의미를 더 확장하고자 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축제가 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는 희망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다.  
 희망을 만드는 활동에는 축제라는 한판 놀이 마당

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원론적이지만 자원봉사 축제라는 것은 이러한 희망과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자원봉사 대회라는 타이틀보다는 자원봉사 축제라는 타이틀을 선호한다.

여기저기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둘러보면 축제도 존재하고, 대회도 존재한다.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철학을 담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달라진다.

광명시에서 지난 9월 19일 세계자원봉사자의 해(IYV) 기념 자원봉사 물결운동과 제1회 광명시자원봉사축제를 진행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이다. 이를 기념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물결운동과 자원봉사 축제가 계획되었고, 광명시에서 주최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 광명YMCA, 광명YWCA, 새마을지회, 적십자지구회, 광명걸스카우트 도덕삼엽회, 만남의집, 미용사회, 청소년문화의집, 징검다리, 소나무 등 자원봉사 관련 기관과 단체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물결운동, 자원봉사 활동전시 등 행사영역에 참여해 주었다. 행사 내용은 하안사거리부터 시민회관까지 성화봉송과 자원봉사자 걷기행사가 물결운동으로 진행이 되었고,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 활동 전시와 자원봉사 활동 비디오 소개, 자원봉사 사례발표, 자원봉사 격려, 청소년 포스터 공모 및 전시, 그리고 문화행사 등이 축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시·군 단위 자원봉사축제나 대회는 지역마다 시기나 내용에 있어 상이하게 치뤄지고 있다. 이미 이러한 류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광명시의 경우 자원봉사 축제를 직접 주최해서 치른 경우는 처음이다. 그 만큼 축제 운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가는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큰 무리 없이 행사를 치루게 된 것은 행사에 참여해준 각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의식과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행사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어떻게 내려지든 광명시자원봉사축제가 치뤄졌고, 앞으로 이런 축제가 더욱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 축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음지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밖으로 더욱 드러나 우리사회가 살맛나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자원봉사 축제를 통해 한껏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희망을 축제라는 그릇에 담아냄으로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어느 축제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축제의 주인은 참가자들인 자원봉사자들이다라는 축제 주체의 확인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을 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축제 주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이를 통해 자원봉사 축제를 지를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정비 등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아울러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민관 파트너쉽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자원봉사 축제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선언적인 메시지를 늘 상 우리 곁에서 확인해주는 축제로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문화잡지인 문화저널에서 자원봉사축제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것에 감사한다.



제13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 대상 수상작

## 광명시 "아방리 줄다리기"

아방리는 조선전기에 금천현 남면, 1795년 이후에는 시흥면 남면 노온사리, 아방리, 가학리, 유등리, 노온곡리라 했다가 1895년 고종 32년의 칙령에 따라 시흥현이 시흥군으로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시제실시로 현재의 광명시 학은동 2통에 편입된 아방리는 강석기(1580-1643, 조선조 학자, 우의정), 민회빈 강씨(-1646, 소현세자비), 정원용(1783-1873, 조선조 문신, 영의정),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아방리의 선사유적지에서 지석묘와 반월형석도, 고인돌 빗살무늬토기 등이 발굴되어 학계에서 조사중이며 문화제로 오리 이원의 정승, 이순신 묘, 영희원 등의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다. 이곳은 일찍이 농경마을로 정착되어 농사와 농요가 크게 발달되었으며 몇 해전만 하더라도 두레 굿이 성행하였다 한다.

특히 아방리 줄다리기는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 행하여지던 마을 축제로서 옛모습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옛날부터 아방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로써 정월 대보름날에 행하여진다. 작은 고을이

나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 하루만 하지만 큰 마을에서는 15일을 전후해서 3일동안 하기도 하였다 한다.

대보름 2-3일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과 함께 고사를 지내고 줄다리기를 시작하였다. 줄에는 암줄과 숫줄이 있어 동에는 숫줄, 서에는 암줄이라 일컬으며 이긴 쪽은 그해의 농사가 풍작이 되고 악질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아방리 줄다리기는 여자와 남자로 동, 서를 구분하여 여자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 하여 남자 쪽이 슬쩍 쳐 주었다 한다.

아방리 줄다리기 행사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놀이가 있었다. 바로 품삯을 정하는 일인데 동네 청년들을 모아 바위들기, 무거운 지게지고 일어서기, 오줌장군 지고가기 등의 시험을 거쳐 품삯을 정하는데 남편이 없는 아녀자들은 물동이 이고가기, 도리깨질 등의 시험을 거쳐 온 품삯 또는 반품삯을 정하였다 한다.

줄다리가 끝나면 달집에 줄을 감아 태우며 달님질을 하며 소원성취를 빌었다고 한다. 지금도 정월 대보름이면 아방리 주민들은 축제의 한마당 놀이를 펼쳐 보인다.

## 놀이의 흐름

아방리 주민들은 병풍처럼 둘러친 구름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어오고 있으며, 마을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시 구름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한다.

### 1. 입장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 입장하며 입장순서는 마을을 지키는 터주가리, 귀신을 막는다는 지전기, 용기, 농기, 영기 풍물패를 시작으로 마을의 어른이신 제주와 푸짐한 음식을 인 아낙네들이 줄과 함께 입장한다.

### 2. 줄놀이

영당 할아버지와 영당 할머니를 줄에 태우고 동네를 한바퀴 돌아오는 길놀이로써 암줄과 솥줄을 어깨 위에 들어올려 서로 마주보고 서너 차례의 얽힘과 떨어짐을 반복하는(성을 묘사) 놀이로써 마을 주민들의 협동심을 길러주는 놀이이기도 하다.

### 3. 품삯 정하기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를 하기 전에 마을의 부잣집에서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그해의 농사철에 일꾼으로 쓰이는 청년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시험제도이나 그리 엄격하지 않고 놀이판 형식을 빌렸으며 남자들은 무거운 지게나 바위를 들어올리고 여자들은 물통이나 도리깨질 같은 것으로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 한 분이 온 품삯 또는 반품삯을 정하였다 한다

### 4. 줄고사

줄고사는 줄다리를 하기 직전에 하던 것으로 가가 호호 집집마다 운수 대통하고 우환질병, 근심걱정 모두다 삭제해 주시고, 국태민안 시화연풍으로 점지해 달라고 비는 의식이다.

### 5. 줄다리기

줄은 솥줄과 암줄로 나누어 동쪽은 남자가 서쪽은 여자가 당기며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들은 여자 쪽에서 줄을 당긴다. 양쪽 용두를 맞대어 비너목으로 꽂아 고정시킨 후 영당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휘에 따라 줄을 당겨 이긴 편은 기세가 등등하여 진 편의 어린 아이들까지 놀리게 된다. 이렇게 서너 차례 줄을 당겨 마을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서 간혹 민요나 농요를 부르며 축제 한마당을 꾸미었다 한다.

### 6. 달집태우기

아방리 마을에서는 정월 14일~16일 사이에 만월이 되는 날 망월이라 하여 구름산에 올라가 달 돋는 것을 보고 햇불을 흔들면서 '망월이여 망월이여'하고 외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달을 본 처녀나 총각은 시집장가를 간다고 하며 신랑은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이때에 솔가지나 대나무로 만든 달집을 태우며 소원을 빌었던 것으로 아방리 주민들은 줄을 달집에 감아 태워 그 재를 논이나 밭에 뿌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 7. 퇴장

마을 주민들이 풍물과 함께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벌인 후 퇴장한다.

정리 | 정은경

## 사과 다섯개의 추억

김세경(광명 문인협회 회원, 광명 7동 주부)

사과 다섯개의 추억  
세상엔  
정확히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콩 한쪽 사과 한 개  
이등분의 법칙으로  
정확히 쪼개어 가진다 해도  
입 안의 고이는 마음 조차  
같을 순 없다

우렁이 엄지손이 부끄러워  
주먹속으로 감추곤 하던  
더하기 보다 빼기를 잘 하던  
과수원집 영이  
사과 다섯 개 둘씩 나누고  
남는 하나는 늘  
내게 주곤 했지

철부지 영이는 알았을까  
오랜 세월 지난 후에도  
사과 나무 한 그루  
내 마음속에 자란다는 것을  
하나 더 가지는 것 보다  
하나 더 주는 것이  
남는 일이라는 것을

## 참새와 허수아비

김길자(철산 3동 주부)

아침을 여는 햇살과  
기울어져가는 저녁노을

두 팔 안에 넣은 허수아비

소슬바람 물결치는 듯  
무르익는 가을  
세월의 태엽은 풀리고

때 찾은 참새 한 마리  
여린 발가락으로  
땅 너비를 재다가

뚫린 논두렁에 외발 딛고  
범거지 할아버지 눈치 본다.

## 내 안에 작은소망

김길자(철산 3동 주부)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초승달 끝에 머물다  
살포시 내려 앉는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갈 바람 입술에 문채  
소리 없이 찾아들어

설레는 그리움은  
지는 꽃잎 수줍게 하고  
내 품 안에 숨쉬더니

수련화 앞에 쉬려다  
살며시 살아진다.  
서러움에 울컥 이는  
그대 하나 별 하나

영원의 빛 사슬에 묶어  
당신!  
살며시 내 가슴에 품는다

# 사람답게 살아가기

정유준 / 광명 문인협회 이사

가을이 깊어간다. 바람에 나뭇구는 낙엽을 보면서 흐르는 슬픔을 어둠속에 묻는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건강한 웃음으로 악수를 나누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접하고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50 중반이면 아직 한창일 나이 아닌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자신만만해 하던 친구가 웬일이란 말인가.

행복을 갈구하면서 왜 행복을 상실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어렵고 힘들게 한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다. 살아가는 방법이나 삶의 질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모두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연은 있는 그대로 생성되고 소멸됨에 있어 인간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에 따라 제 나름의 세계를 지니고 행복과 불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서로 짝하면서 허용된 시간 속에서 고뇌하지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욕망과 거짓과 타락으로 허우적거리는 오늘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마다 홀로 선택받은 존재처럼, 온갖 사물이 마치 자기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아우성인 착각의 수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莊子は <외편>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했다. 마음에 병이 깊은 사람일 수록 마음을 비워야한다. 삶은 무엇을 몰라서 탐이 아니라 너무 알아서 탐이다. 그래서 모두 나름대로 마음의 병을 앓는다. 잊을 일이다. 첫 새벽 하늘처럼 말끔히 씻고 비울 일이다.

자연대로 살아라. 전자방(田子方)편 어록에 「풀을 먹는 짐승은 수풀이 바뀌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물 속의 벌레는 물이 바뀐다고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모든 동물이 나무며 풀이며 여름이면 여름대로 살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살아간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대로 살다가 자연대로 죽기를 거부한다. 더우면 덥다고 겨울을 그리워하고, 추우면 춥다고 여름을 그리워한다.

바람도 하늘이 있어야 불고, 물도 땅이 있어야 흐르는 것을 왜 우리는 욕심대로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가.

겸손할 일이다. 마음을 닦는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안다. 저 황금들판에 알알이 영근 곡식을 보라. 무거워서가 아니라 자연에 감사하는 까닭일 것이다. 무엇을 어둠 속에 감출 수 있는가. 화려한 웃음으로 가슴의 문신을 가릴 수 있는가. 화사한 웃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있는가. 세상사 모두 허망한 일일 수도 있다. 붉게 물든 단풍으로 떨어지는 낙엽, 찬란한 한 줄기 빛으로 사라지는 별뿔뿔, 아침 햇살에 스쳐가는 영롱한 이슬을 보면서 인생 역시 아름다운 순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광명시와 나

하라 유끼꼬 (도쿄어학원 강사)

제가 광명시를 처음 방문 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사가미하라시의 국 제고 류 협회가  
광명시와의 교류를 처음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공식적인 방문 이 아니었습니다만 시청을 방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이원익 선생의 서원지를 방문 하여 문 화원의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많아 그 때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후 여행으로 몇 번 왔습니다만  
그 때마다 광명시국 제고 류 협회의 김미정 회장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문화활동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 이나 노인들을 위한 활동 이 많아  
문화활동에 충실한 것을 알았고 광명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 이 아닌 광명시에 살기로 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광명시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국 제고 류 협회 사람들 등  
몇 번의 방문으로 사귀어 사람들과 덕분에  
외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과 빨리 친해져 매일 즐겁습니다.  
저는 광명시가 좋아졌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광명시에 살고 싶습니다. 결혼 후에도 광명시에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도시 광명시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PR해서 세계속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 하고 싶습니다.

#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은경 (광명문화원)

저 이제 시집가요.

친구들 먼저 보낼 때면 '넌 어떻하니' 하셨죠.

매번 야외촬영이니, 결혼식이니 졸래졸래 쫓아만 다니다 이젠 제 일이 되어 난생처음 예식장엘 제 결혼식 이야기를 하느라 다니고 웨딩 스튜디오 가서 야외촬영 예약하고 뺨질나게 백화점엘 가서 눈구경 실컷 하느라 운몸이 돌이라도 모자라게 뛰어 다니고 있어요.

시어른들께도 인사드리느라 왔다갔다..

사실 정녕 엄마 아빠랑은 얘기 나눌 사이도 없어요.

거의 매일 보던 조카녀석도 이모얼굴 못 봐서 빼졌다고 하는데 더하시죠.

괜히 이래저래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운한 일만 만들어 드리고 제가 해야할 일도 바쁘다는 핑계로 두분 뒤편으로 돌리기만 하구요..

죄송해요. 항상 그랬어요. 많이 잘못하고 두분 속상하게 해드려도 죄송하다는 말 못하는 버릇없는 딸인데 항상 화내시다가도 '그래그래' 하고 먼저 화 푸시고 또 챙겨만 주셨잖아요.

요즘 머느리 되느라 어른들을 뵈 때면 항상 그랬던 양 공손한 듯 얌전한 척 할 때마다 먼저 눈물이나요. 언제 내가 내 부모님께 이런 적 있었던가. 내 부모님께도 못한 효도 다른 분들께 먼저 하려니 왜 화가 나는지 혼자 똥하니 창 밖만 보면서 한숨쉬고.

그러다가 이제라도 좀 하자 생각하지만 돌아와서는 하루동안 힘들었던 티내느라 또 짜증부리고 찡찡대고.

또 죄송해요. 원체 잔정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유달리 자식들 사랑 넉넉한 우리 아빠.

항상 '우리 딸 우리 딸'하시면서 저보다 이쁜 머느리, 저보다 착한 머느리 보시구도 못한 딸이 더 이쁘다며 뭐든 못해주셔서 마음 졸이시고 남보다 모자랄까 걱정하시던 우리 아빠.

그래도 사위 앞에서는 '남편은 하늘이니깐 그런 맘으로 돌이서 다정히 살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빠. 작은 딸 사랑해 주신 것만큼 저희 아끼면서 사랑하며 살게요.

살면서 좀 부족할 지 모르겠지만 아빠 사위도 장인장모께 부모처럼 한다하니깐 믿으시구요. 다른 분들도 그렇다지만 관절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엄마. '더 많이 아프기 전에 시집가라' 하시더니 요즘 이러다가 엄마 되려 병 나실까 걱정돼요.

엄마, 엄마 사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 저도 역시 시어른들께는 그럴 꺼라 생각하시고 많이 속상해 하지 말았으면 해요.

엄마 욕심에 맞는 사람 못되는 거 알지만 사실 엄마는 평범하다고 하시지만 엄마가 바라는

# Wedding Day

사윗감이 세상에 많지 않은 거 엄마도 잘 알잖아요.

저랑 싸울 때면 늘상 '너도 시집가서 살아 보라' 하셨죠.

전 그 말씀을 너무 싫어했는데 아마 저도 나이 들고 저만큼 크고 당돌한 딸내미와 싸울 때면 그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싫은 점은 닳는 다잖아요.

그치만 엄마처럼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어른들께도 잘하며 살 자신은 없어요.

'너처럼 밥 한번 빨래 한번 안 하는 딸 없다더라' 하시면서도 맘먹고 저녁 설거지 한번 하려 해도 말리시곤 '나중에 하기 싫어도 실컷 하니깐 됐다'며 종일토록 종종걸음 하시느라 피곤 하셔도 내색 않으시는 우리 엄마.

남들은 딸내미 그렇게 키워 뭐하나 하실 지 몰라도 그런 얘기에 꿈쩍 안 하시는 우리엄마.

빨래는커녕 밥도 못하는 딸내미 장남한테 보내고 가슴 졸이시겠죠.. 걱정 마세요.

잘할게요. 엄마께처럼 못된 소리 안하고 착한 며느리 노릇하면서 엄마 아빠 흥 안 들으시게 노력할게요.

자식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며 그만큼만 더 서운해하시는 두분 만큼은 아니어도 못한 저도 많이 서운해하는 거 아시죠. 시집가서 토닥거리지 않고 걱정시키는 일없도록 하면서 살게요. 두분께서 주신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 『어린이문화장터』

10월 13일(토) / 실내체육관 마당  
주관 : 광명문화원

- ▶ 전통문화체험마당
  - ▷ 전통부채만들기
  - ▷ 솟대 만들기
  - ▷ 복탈만들기
- ▶ 만화동산
  - ▷ 만화그리기대회 - "2020년 광명의 모습!"
  - ▷ 캐리커처그리기
  - ▷ 페이스페인팅
- ▶ 공연마당
  - ▷ 출연: '아름나라' 특별공연, 광명서초등학교 어린이 댄스팀, 킹도장 어린이태권도시범단, 문화의집'한국무용팀', 광명문화원'영어체험단', 구름산 자연학교 풍물패
- ▶ 자전거면허시험
  - ▷ 「걸고싶은 도시연대」와 함께 합니다.
  - ▷ 자전거는 개인이 갖고 오세요!!

※ 모든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입니다  
준비물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광명문화의 집』 『찾아가는 문화행사』

- ▶ "해설이있는 음악회"
  - 10월 31일(수) 19:00 / 시민회관 대공연장
  - 주관 : 광명문화의집 (문의:680-6156)
  -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광명시
- ▶ "극단 안데르센의 창작 뮤지컬 -양양 푸뚜꾸"
  - 11월 2일(금) 10:00 / 시민회관 대공연장
  - 주관 : 광명문화의집
  -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광명시

##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유적답사』

- ▷ 세계문화유산을 찾아 "종묘와 창경궁"
  - 답사지 : 종묘, 창경궁
  - 10월 21일(일) / 참가비:이만원 /
  - 주관:오리이원익기념관 (문의:899-4344)
- ▷ 백제의 첫 도읍 위례성을 찾아 "서울 강동지역"
  - 답사지 : 몽촌토성, 석촌동, 방이동 고분, 암사동 선사유적지
  - 11월 4일(일) / 참가비:이만원 /
  - 주관 : 오리이원익기념관 (문의:899-4344)
- ▷ 조상들의 숨결이 흐르는 "박물관 탐방1"
  - 답사지 : 농업 박물관, 좌 . 폴 생활사 박물관
  - 11월 18일(일) / 참가비:이만원 /
  - 주관 : 오리이원익기념관 (문의:899-4344)

## 『전통문화 체험교실 안내』

- 전통 인쇄문화 체험, 천연 염색 체험교실, 전통 문양탁본 체험
- 7세부터 중학생까지 (40명이상 단체접수도 가능합니다)
- 10월1일부터 ~ / 참가비:오천원(재료비포함) /
- 주관:오리이원익기념관 (문의:899-4344)

## 『제2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23일(화) 19:00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관 : 광명시 시립합창단(문의:680-6335)

## 『청소년관현악단공연』

10월 26일(금) 19:30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관 : 광명시 청소년관현악단

## 『무료영화 상영 - "쿠스코 쿠스코"』

10월20일 (토) 14:00~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관: 시민회관

## 『광명동화읽는어른 연합 가을 -대중강좌 및 문화행사』

10월 24일 10시~12시, 4시~5시30분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최 : 광명동화읽는어른연합, 평생학습센터  
주관 : 광명동화읽는어른연합 (문의:680-6386)

## 『제11회 구름산예술제』

10월 6일(토) ~ 10월 20일(토) / 시민회관 대공연장 등 / 주관 : 예총 광명지부 (문의:680-6229)

일시	행사명	장소	일시	행사명	장소
10.6(토) 17:00	개막식	문화의 거리	10.13(토) 10:00	광명시 백일장	실내체육관
10.6(토) ~ 11(목)	광명미협회원전	시민회관 전시실	10.16(화) 19:00	구름산국악제	시민회관 대공연장
10.11(목) 19:00	구름산합창제	시민회관 대공연장	10.17(수) 19:00	창작무용 공연 "들꽃"	시민회관 대공연장
10.12(금) 11:00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시민회관 대공연장	10.18(목) 11:00	구름산가요제	시민회관 대공연장
10.12(금)~17(수)	사진협회 사진전	시민회관 전시실	10.18(목)~20(토)	미술,서예 입상작품 전시회	시민회관 전시실
10.13(토) 10:00	광명시 미술대회	실내체육관	10.19(금) 09:00	학생음악경연대회	시민회관 외
10.13(토) 10:00	광명시 서예대회	실내체육관	10.20(토) 19:00	연극공연 '최후의 뜨거운 연인들'	시민회관 소공연장

# | 광명문화원 소개 |

광명문화원은 우리 생활속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마당 '광명문화원'으로 오십시오.

"본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1992년 4월 개원한 문화단체로 전통문화계승·보존과 지역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 지역문화행사 개최  
5월 오리문화제 / 10월 어린이문화장터 등
- 향토사의 조사 및 새로운 문화의 발굴  
향토사연구소/문화의집
-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선양  
오리이원익 기념관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활동  
광명문화저널/광명어린이신문 발행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교육활동  
어린이기자단(광명어린이신문)  
어린이영어연극단  
어린이합창단(노래친구들)  
남성중창단  
청소년만화창작단(청개구리)  
청소년연극단(울터)  
청소년영상단(필름참고)  
여성회 주부노래교실  
주부영상단(해오름)  
주부연극단(어울림)

## 광명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1. 광명문화저널 등 각종 간행물 우송
2. 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10% 할인
3. 오리이원익기념관 프로그램 초청
4.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5. 여름·겨울 캠프 참가비 20% 할인
6. 어린이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7.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열람 및 대출
8. 취미동아리 결성시 공간 등 편의제공
9. 오리문화제 등 각종행사 자원봉사 등 우선 참여
10. 문화원 회원증 발급

###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로 입금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연회비 : 30,000원
- 입 금 : 농협 099-01-000054 (예금주:광명문화원)
- 문의 및 접수  
광명문화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시민회관 3층  
T : 680-6269/2618-5600 F : 688-4385  
E-mail : kmcc410@hanmail.net  
문화의집) T : 687-0556 F : 687-0557



# |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



## 문화원 임원

원 장	정원조 682-3456	광명2동 50-2 예담 한의원 원장
부원장	유홍무 2615-9982	광명4동 158-235 새롬방송 회장
부원장	안수남 2615-0077	철산2동 성리빌딩 402호 안수남 세무사사무소
부원장	곽향숙 689-9944	산3동 241-1 사회체육센터 외대어학원 원장
감 사	장병환 2618-5678	철산2동 463-18 경기매일 사장
감 사	윤 철 2616-2392	철산3동 222-1 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이 사	김경표 689-8689	철산3동222-1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의장
이 사	박천범 016-755-8553	철산동 356-26 (주) 썬프로상사 대표
이 사	이기철 897-0555	소하동 1268 이화프라자 (주) 이선 대표
이 사	안성근 2616-1512	광명4동 43-48 금호주택건설 대표
이 사	민완기 688-2001	철산동 219-1 에이스텔 810호 (주)해오름 대표
이 사	조상욱 2616-6466	철산동 519-49 포세이돈하우스 (주)포세이돈하우스 대표
이 사	김미정 682-2277	철산3동 245-5호 한영빌딩3층 도쿄어학원 원장
이 사	김양주 895-2701	하안동 53-1 골든힐빌딩603호 (주)두레식품 대표

## 문화원 가족

### 문화원 사무국

철산3동 222-1  
2618-5800  
사무국장 양철원  
대리 정은경

### 문화교육연구소

철산3동 222-1  
2616-2392  
소장 윤철  
부소장 이종락  
연구원 이은경

### 오리이원의 기념관

소하동 1055-3번지  
680-6307  
관장 김한담  
간사 강은미

### 문화의집

광명5동 170번지  
680-6156  
팀장 한옥현  
대리 오은영  
간사 신란희

### 청소년 문화의 집

광명5동 273번지  
680-6163  
관장 윤철  
팀장 이은경  
간사 정현주

# | 광명문화원 회원소개 |

광명문화원 회원여러분의 문화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가나다 순)

강옥영  
고미정  
권효근  
김귀남  
김남이  
김미순  
김선아  
김영선  
김현숙  
노희숙  
박명옥  
박미우  
박병일  
박상대  
박순환  
박우진  
박필전  
신춘심  
심영순  
안병희  
양난숙  
염상옥  
오금순  
윤상현  
윤순남  
이경희  
이미라  
이수연  
이애영  
이혜숙  
이훈자  
임정순  
장영자  
전외숙  
전태훈  
정용자  
조봉자  
조영숙  
천옥주  
최분섭  
최연순  
표옥정  
한순자

\*상기 명단은 회비 납부자 명단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원고모집

지역 주민의 문화마당  
광명문화저널 3호에 실을  
주민의 글을 찾습니다.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수필, 시, 기행문 등 삶의 내용을 담은 글

문의 : 광명문화원 (2618-5800)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퍼즐 정답 ▶

1	이	원	익		2	화	랑	3	도		
	순			4	보	살			덕		
5	신	6	청		리		7	구			
		8	백	미		9	안	개			
		리			10	감		11	음	12	영
13	내			14	연	주				회	
15	시	위	대			16	광	혜	원		



## 『 2001 광명문화의 집 - 찾아가는 문화행사 』

가을이 깊어 갈 즈음 우리의 마음을 채워 줄 문화공연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 모던팝스 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음악회"

10월 31일(수) 19:00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관 : 광명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광명시

### ▶ "극단 안데르센의 창작 뮤지컬 -양양 푸푸꾸"

11월 2일(금) 오전 10:30 / 시민회관 대공연장  
주관 : 광명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광명시